朝鮮日報 夕刊 十九日(土)

東阿問題에新形勢展開

英佛伊三國會談 突然羅馬서開始

十八日무首相駐伊英佛大使間

英伊對立緩和工作

【羅馬十八日發電通】聯盟의 對伊制裁實行期切迫과 英國의 武力制裁도不辭한다는 强硬態度와 伊太利의 리비아增兵에 依한 英國威脅態度等으로 歐洲全土의 不安은 益益濃厚하야 異常한 戰雲에 싸여잇던바 俄然 十八日에 至하야 羅馬에 英佛伊三國會談이 開始되어 이異常한 緊張도 漸次解消되려는 新形勢의 展開가 認定되게되엇다

卽 十八日午前 뭇솔리니首相은 駐伊드라몬드英大使를 招致하고 長時間동안 協議를 거듭하고 이어서 드·상브룬佛大使는 드라몬드英大使와 協議하는等 羅馬外交界는 慌忙한 動向을 보이기 始作하엿다 兩會談의 內容에 對해서는 伊太利政府當局及 英佛兩大使館當局과 함께 協力秘密態度를 取하야 會談事實을 숨기고 交涉의 扉門은 아직도 閉鎖되지안헛다는 旨의 伊太利政府의 콤뮤니케에서 陳述한 外에 言及함을 避하고잇는데 消息通方面의 觀測에 依하면 十八日의 會談에서는 英、佛、伊間에 大體左의 中間的協定이 成立되엇다고 解釋된다

一、英國은 地中海에 集結한 艦隊의 一部를 撤收할것

一、伊太利는 리비아에增派한 兵力을 減小할것

三、佛國은 英國艦隊의 一部가 地中海로부터 撤收한 代償으로 佛國海軍을 必要에 應하야 英國에의援助供與의 目的에 流用하는것을 容認할것

그리고 이三項目이 最後的決定을 보게되면 歐洲의 伊英兩國의 衝突의 危機는 回避되게되고 和平的解決裡에 伊에間의 講和도 이外交交涉으로 續行될것으로 期待된다

三國重要會談後 伊콤뮤니케發表

【羅馬十八日發電通】十八日 伊佛、英三國의 重要會談後 伊太利外務省으로부터 發表된 콤뮤니케全文은 如左하다

巴里、羅馬兩政府間 巴里、倫敦兩政府間의 協議會同은 正規의 外交機關에 屬하지안코 續行되고잇는데 現在로는 아직 何等 特記할 結果에 達하지안헛스나 敍上의 會談이 繼續되고잇는 事實自體는 右諸政府間의 往來의 扉門이 아직 決코 閉鎖되지안햇다는것을 示하는것이다

英伊兩國大使 佛首相訪問協議

【巴里十八日發電通】駐佛伊太利大使체루티氏와 英國大使클락氏는 十八日午前 차례로 라발首相을 訪問하고 무엇인지 協議를 遂하엿다 라발首相이 英伊間의 對立緩和를 斡旋하고잇는 이때라 注目되는바 傳聞하건대 라발首相은 클락英大使에게 對하야 佛國은 끗까지 聯盟規約을 擁護하는者이다 라는 保證을 再備하엿는데 클락大使는 地中海에서 伊太利가 英國艦隊에 挑發업시 이것을 攻擊한 境遇에 佛國은 英國을 援助하겟느냐고 再質問하매 이에 對하야 佛首相은 特別한 境遇에 끗치지안코 모든 境遇에 이것을 適用한다면 佛國은 英國과 完全히 協調할 用意가잇다고 確言하엿다고한다

兵役보다도病魔 東阿伊軍苦惱相

【스에즈十八日發聯合】北部에리트리아의 伊太利軍의 勝利가 頻頻히 傳하고잇는反面에 에리트리아方面의 船舶은 依然 伊太利軍의 難避苦難의 情勢에 對한 報道를 傳하고잇는데 伊軍의 半歲에 亘한 苦心經營에도 不拘하고 지금에도 飮料水의 供給不足을 感하야 風土病、肺炎、腎臟炎、赤痢의 重症患者가 續出하야 軍當局은 에디오피아軍보다도 熱帶病의 防疫에 餘暇가 업서 軍用船二隻은 맛사와港에서 晝夜兼行 病人用水의 製造에 當하고잇다고한다

民世漫評

文化와數量關係 人意離脫의自然行程 (四)

安在鴻

× 文化 習俗은 數量 으로써 決定되는것이다 그럼으로 先代에잇서서 交通通話(라지오와 無線電話가 開通된 오늘날에는 맛당히通話이오 通信이아니다)가 緊密로록 發達되지못한 社會에서는 그政治 文化가 훨신進步된 征服民族이면서 그被隸屬人民에게 도리어 解消土化한 例가 적지안타 論家가 만히또는 中國歷代의일은 이보담 다른바잇스나 周代에 中夏를 猾害하야 孔子로 하야금 排外主義인 春秋의 尊華宗을 세우게 하든 九夷八蠻의 부치가 秦代以後에서 『秦民戶』하는 同化의 結果를 지엇고 五胡十六國의 『神州陸沈』을 빗게이든 塞外民族도 結局다 그리 되엇스며 唐宋以來 累世紀에 驚項 吐蕃 遼金의 무리와 淸朝三百年의 盛運을 맨들엇든 滿洲族도 現代에는 온통으로 溶解되고마럿다 이예瞭하야 論者다만 漢種族의 文化의威力을 喋喋하기에 밥부나 그는 未盡한바 잇나니 그作用되는 實際에서 첫재數量이오 슬재는멧世紀식 걸치서의 그리고도 大數의 漢人속에 갈갈히 헤터저 끼우게되든 그時間과 社會的 諸條件이 必過해서 아니될 要點이다 이제 塞外民族이란 者그 相對的低級인 劣等文化로써 高級인漢族文化의 속에 消滅됨을 力說하나 가장 高度의 文化로써 척신 떨어지는 被隸屬人民의 속에들어 적구로土化同化한 例는 얼마 든지잇다

× 民族心理學의 權威요 딸아서 植民政策의 高級의理論家인 르봉이 指摘하엿슴과 가티 埃及을 征服하엿든 多數한文化的國民은 그希臘、羅馬 波斯 亞剌比亞·土耳其 等等의 누구임을 무론하고 한결가티 이나라에 血統을 머물르지아니하엿다 往者 印度에植民하엿든 少數의 아리안人은 古代 希臘의 그것에도 匹敵할 華麗한文學을 印度에 남겨논채 印度人과의 雜婚으로 近代의 初期에서 全然 그民族的特質을 消失하엿다 佛蘭西의 『노르만디』는 上代『노르만』民族의 征服定住의 땅이면서도 오늘날에는 그容貌에 간신히 古代『노르만』의海賊을 聯想케할뿐이오 言語習俗은 온통으로 佛蘭西化하엿다 德川幕府의 初年에 이르기 까지 南洋一帶에 移住하엿든 當時의日本人이 現今에는 무슨日本人의 모습을 그곳에 남긴것이업다 이런것은 母國과의 交通通話가 끈치고 背後의 政治的力量이 그를支持하는 現代의 그 事情과는 判異한바를 着眼치 아니하면 아니될바이나 그러나 그대신 多數의 原住民族과 少數의支配하는 移住人民과의 關係에서 雖然히 多數者의 物力的耐久와保存의 作用을 看過할수는업다 하물며 現代의 公正한·政治批判에잇서 一國民이 一民族에對한 特殊한支配의關係는 言語의問題에 最大 또는 全幅의意義가 잇슴은 究竟은 업다 同化問題도 究竟은 同一한것이다

中國最初의大演習

蔣氏自身總指揮 精銳部隊六萬動員

飛行機百臺도參加活動

對上海會議의示威?

【上海十八日發電通】國民政府는 約一週間前부터 福建의第八十七師를 爲始하야 浙江保安隊其他蔣介石氏直系의 最精銳部隊七師約六萬의 大軍을 浙江省北部、江蘇省南部、安徽省南部에 配置하야 上海包圍의 陣形을 取하고잇는데 이것은 蔣介石氏의 發意에 依한 中國最初의 大演習을 秘密裡에 行하고잇는것으로 이大演習은 蔣介石氏自身이 總指揮官이되어 上海方面으로부터 西進하는 紅軍(司令官何應欽氏)에게 對하야 靑軍(司令朱培德氏)가 如何히 南京을 지킬가를 硏究하는것으로 約百機의 飛行機가 連日江南의 平野를飛翔中이다 이大規模의 大演習實施는 日本의 上海會議에 對한 示威라고도 보인다 (寫眞은 蔣氏)

끗까지協力要請 레特使有吉氏와協議

【上海十八日發聯合】英國經濟特使리스로스氏는 十八日午前十一時 大使館에 有吉大使를 訪問하야 餘人을 交하지안코 約一時間동안 會談하엿다 右會見에서 리스로스氏는 中國에 對한 英國의 借款에는 日本政府의 『모랄·서포트』를 絶對必要條件으로한다는 趣旨를 指摘하고 日本政府의 意嚮에 對하야 深刻한 打診을 試하엿다고 確聞된다

陸海外首腦者 續續上海에集合

【上海十八日發聯合】駐中陸海外三省 駐外機關重大全部는 드듸어 十九日의 首腦者全部를 始初로 二十、二十一日兩日에 亘하야 上海에서 開催케되엇는데 會期切迫과함께 中國各地에 散在한 武官과 總領事는 續續 當地에 參集하고잇서서 十九日夜까지에는 高橋北平武官을 爲始하야 全部參集할터이오 海軍側도 杉坂少將이 引率한 第十一戰隊는 漢口로부터 下村少將의 第五水雷戰隊는 汕頭로부터 모다上海로 向하야 이미 發錨하야 二十日까지에는 當地에 到着하기로되엇다 그리고 岡村少將은 上海會議가 終了되는대로 廣東駐在의 臼田中佐와함께 二十三日當地出帆의 便船으로 廣東으로 向하고 外務省守島課長은 廿一日 當地出發 天津會議列席次北上할 豫定이다

上海會議無期延期

【上海十九日發電通】十九日開催豫定이던 上海會議는 事情으로 無期延期되엿음을 十九日 午前十一時 大使館에서 發表하엿다 有吉大使、岡村少將、守島課長、其他外務、陸軍首腦部는 某所에會合하고잇는데 正式會議는 二十日 奉天丸으로 來滬하는 本田海軍大佐를 加하야 行할터이라고 大使館에서 發表하엿다

近近伊太利軍 第二段猛擊開始

바參謀總長陣地整備

【羅馬十八日發電通】伊太利東阿軍參謀總長바도리오元帥는 드듸어 戰地에 到着하야 伊太利全軍에 亘하야 새로운 緊張이 發해잇는데 同將軍은 에디오피아軍이 마칼레地方에集結을 完了하는 同時에 猛攻擊을 開始할것이라고 全軍에 對하야 陣地의 整備補强을 命할 方針이라고 解釋된다 伊太利軍은 將着 第二段의 戰備를 整頓하고잇는데 當地에 達한 情報에 依하면 伊太利軍의 第二段行動도 後期의 結果를 거둘것으로 豫想되는데 그때까지에는 相當한 時日을 要할것으로 보인다

非聯盟國協力要請과 日本政府의方針

【東京電話電通】國際聯盟制裁調整委員會는 對伊制裁手段에 對하야 非聯盟國의 協力을 求하야 十九日 日米獨伯四個國에 對하야 通牒을 發하야 同委員會에 參加를 求하기로 決定하엿다는 旨가 傳하엿는데 右에 對하야 外務省은 假令 聯盟으로부터 右와 如한 招請을 밧더라도 끗까지 旣定方針에 基하야 獨自의 立場에서 그態度를 決定할 方針이다 卽 外務省에서는 聯盟의 內部에까지 伊太利 制裁反對를 表明한 者도 잇는데 今日 非聯盟國인日本이 制限的에 拘束될必要는업다 歐米各國이 對伊 制裁에 參加하야 歐洲의 空氣가 險惡하게될 境遇에는 日伊間의 金融經濟的關係도 事實上 斷絶과 同樣의 狀態에 잇게될것이므로 日本의 對伊用이 激增하리라고 豫想할수 업다고한다 따라서 假令 日本이 聯盟의 協力을 拒否하더라도 聯盟의 對伊制裁에 支障을 與하는일은 업슬것이므로 國際的紛爭을 生하지는 안흘것이라고 觀測하고잇다

十八日提案된 英國의對伊方針

緩和協定事實上成立?

【羅馬十八日發電通】十八日의뭇솔리니、드라몬드會見에서 드라몬드英大使가 뭇솔리니伊首相에게 表示한 英國政府의 對伊方針은 左의 諸點으로된것이 判明되엇다

一、英國은 伊太利諸新聞의 猛激至極한 反英宣傳에 對하야 不快와 遺憾의念을 禁할수업서 國際平和를 不當하게 擾亂시킬憂慮가잇다는것을 指摘치안흘수업다

一、英國은 伊太利가 伊領리비아에 大大的增兵을 斷行하야 埃及의 兵力에五倍되는 尨大한 軍備를 整頓한데 對하야 必然的으로 大會威의念을 抱懷하게되엇다

一、伊太利側의 敍上의行動은 英國으로하여금自然히自衛準備를 하지안흘수업게 만들어 玆에 英國艦隊의 地中海集結을 비로소 行하게된것이므로 그動機는 全혀 伊太利側에잇다

一、敍上의 緊張을 除去하는것은 英國이 單히 自國을 爲하야서 뿐만아니라 一般平和上 가장 希望하는바이다

그리고 뭇솔리니伊首相이 如何한 解決策에 依하야 이緊張을 緩和할수 잇슬가를 質問한데對하야 英大使는 다시如左한 提案을 하엿다

一、伊太利는 率先하야 리비아增兵의 撤收를 斷行하고 駐兵數의 最高限을 埃及의 全力과 同一하게할것

一、伊太利諸新聞의 挑發的言辭를 自省케하야 言論統制로 하여금 對英反感釀成의 具가 되지말게할것

一、英國은 右撤收와 交換으로 地中海集結中의 英艦隊中 지브랄타르에 待機中인 巡洋艦○隻(數不明)을 原駐地에 歸還케할것을 約束함

右提案에 對하야 뭇솔리니(伊首相은 率直히 考慮可能을 表明하고 그로부터 長時間의 懇議에 옴긴結果 上記諸提案을 骨子로한 暫行的 緊張緩和協定이 事實上 成立되게되엿더이다

四國政府 對伊武器禁輸實施

【쥬네브十八日發聯合】瑞典、올과이、리트와니아 及 愛蘭自由國의 四國政府는 十八日 聯盟事務局에 對伊武器輸出禁止를實施키로 決定한 旨를 通告하엿다 이로써 武器輸出禁止實施國은 十四個國에 達하엿다

人事·集會

宇垣總督渡東

宇垣總督은 侍從御差遣을爲始하야 閑院宮、梨本宮、竹田宮、閑院若宮四殿下 御來鮮에 對한 御禮言上과 觀菊御會의 御召에 依하야 來二十六日京城驛發渡東

▲俵重植氏(京城府社會課長)十九日午前三時京城驛發東京出張

和協工作의成果 이러타할것은업다

伊政府當局서言明

【羅馬十八日發聯合】伊太利政府當局은 和協工作의 成果에 對하야 十八日夜 如左히 言明하엿다

目下 巴里、羅馬、倫敦의外交界의 會談이 進捗되고 잇는것은 事實이다 現在로는 이러타할 程度의 交涉도 進捗되지안헛다 다만 會談이 進捗되고잇다는 事實에 徵하야 交涉의 門口가 아직 封鎖되지 안헛다는 것만은 말할수잇다

中國各地總領事 正式第一次會議

【上海十九日發聯合】中國各地駐劄總領事會議는 十九日 午後二時부터 大使館에서 第一次正式會議를 開催、有吉大使司會下에 守島課長 堀內書記官 須磨南京、石射上海、三浦漢口、河相廣東 各總領事等出席、守島課長으로부터 本省의 方針을傳達、各總領事로부터 各駐在地의 狀況報告가 잇슨後 外務當面의 方策에關하야 協議를 遂할터이다

笠間代表一行 카이로에到着

【카이로十八日發電通】日埃新通商條約締結交涉을 爲하야 來埃한 笠間日本代表一行은 十七日 카이로에 到着하엿다

平和?動亂? 歐洲政局動搖微妙

週末前後로問題決定

【巴里十八日發聯合】歐洲大動亂의 破局을 압두고 佛國首相라발氏가 和協工作에 進出한結果 英佛兩國政府 佛伊兩國政府間에 多邊的外交折衝이 展開되어 一時 極度로 尖銳化한 歐洲의 國際局도 조금 好轉을 示하게 되엇다 特히 佛國政府가 地中海作戰에 關한 英國政府의 照會에 對하야 肯定的回答을 提出한結果 英國政府에서도 地中海海軍力一部 撤收를 考慮함에 當하야 交換的으로 뭇솔리니首相도 리비아遠征部隊의 撤收를考慮할 用意가 잇다고 解釋되다 英伊兩國間의 緊迫關係는 小康을 엇게되리라고 豫想되는데 英伊兩國政府間의 外交關係調整과는 따로히 伊에兩國의 紛爭調停에 關해서도 라발首相、뭇솔리니首相間에 着着交涉이 進行되고잇다 뭇솔리니首相이 戰鬪行爲의 停止와 紛爭處理의 基本條件을 提示하엿다는 報道까지 傳하고잇다、右報道에 對해서는 佛伊兩國政府가 모다 一切 批判을 避하고잇스나 伊에兩國間의 戰鬪停止에 關한 佛伊兩國政府間의 打診工作은 極히 有意義하게 進捗을 示하고잇다고 確聞되다 勿論 에디오피아皇帝의 要求를 强硬主張과 뭇솔리니首相의 要求를 調和하기는 依然 至難하다고보이는데 如何튼 라발首相이 和協外交의本領을 發揮하야 이難局을 打開할수잇슬는지 週末前後를 通한 英佛伊三國政府間의 折衝으로 決定될것이다

謹訂 昨日 夕刊第一面 第二段 順宮殿下同伴은 順宮殿下御同伴의 誤植이기 謹訂함

八面鋒

◇ 地中海上의 危機는 朝夕으로 더해가는 이때에 英佛伊三國이 和協을相議。

◇『아즉도 三國政府間에 往來하는 門이 閉鎖 되지는 안햇다』는것이 伊太利의 聲明。

◇ 往來門이 다치는것은 오히려 조흐나 戰爭門이 열니는날이면 엇지될것인고。

◇ 英國보다도 聯盟의背後에서서 모든安全策을 꾀하는 佛國이 잇는以上 大戰은 尙早。

◇ 그보다도 獨逸의戰備가 아즉은 不足하니 좀더 機會를기다릴것。

◇ 그러나 戰爭은 理性만으로되는것이아니니 어느때에어느모에서 불길이 날지도 모를일。

今日夕刊八面

全鮮特約店更新募集
燈火用石油는 地球票石油가第一
發動機用油는 三角山票가第一
亞細亞石油株式會社 電話本局二〇五九番

金 銀 白金 福
株式會社 石福商店平壤出張所
平壤府旭町 電話一三一四番 受信略號(フクシイウゼイへ)
本店 東京市下谷區練塀町

好職業
男女遠近不問自宅執筆業○動人學生副業最良○收多無休○照會見本進呈
大阪大軌線生駒停留所前 博文社

外科 X光線
醫學博士 鄭求忠 (入院室完備)
京城鍾路三丁目十六 電話光化門六八五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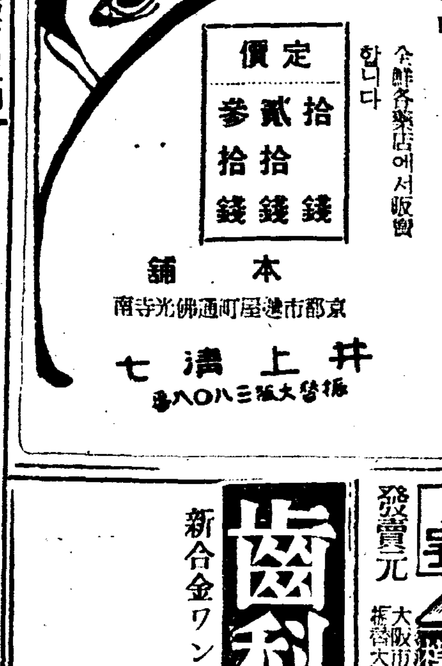
販賣社員大募集(月收百圓以上確實)
男女失業者有閑靑少年大歡迎
急告
▲商工一般問議歡迎▼
最新型=洋服大投賣
背廣(色澤自由 三ツ揃一組)=二三圓
オーバ(色澤自由 最高級品)=二〇圓
學生服(黑サージ メンサージ)=一五圓 一三圓
東亞商工獎勵社 東京市淀橋區柏木五ノ一、一八〇 振替口座東京四一八七二 電話四谷三八一五

金銀高價買入
金銀賣買合資會社
代表者 大盛守德
電話本局一三八〇番 振替京城一三四八〇番

●手紙の事なら何んでもわかる
手紙上手は成功の鍵!!!
實用新案 手紙大辭典
大評判の手紙の本
現代出版社

大景品進呈
常用漢和辭典 いろは引新辭典 文章新辭典 總ふ書簡全集 模範日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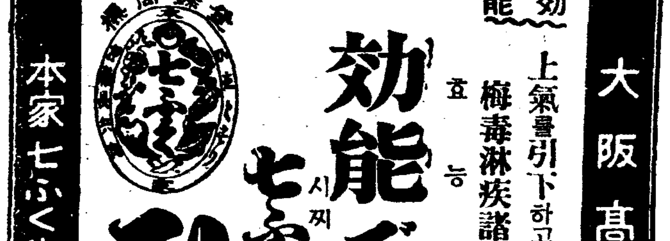
齒科器械材料
新合金ワンダー鈑 其他各種、在庫品豐富
京城府南大門通四丁目(東一銀行南大門支店橫入)
中央齒科商會 電話本局二-四六八 振替京城一六四九八



어느우에눈씻는약
井上目洗藥
속하고잘낫는 안질일절의량제 정상눈씻는약
井上目洗藥은如何한眼疾에던지 絕對로神効함니다
一次井上家寶의眼疾藥을使用하신분은藥効의信用이多大함을 말함니다
定價 拾錢 貳拾錢 參拾錢
全鮮各藥店에서販賣합니다
本舖 京都市蛸藥師通佛光寺南 井上淸七 振替大阪三八〇八番

好職業
不景氣の失敗는이것으로 日本藥副業으로男女小兒遠近不問自宅에서될수잇는好職業年中無休、藥書로申込하라說明書及見本無代進呈
大阪天王寺區堂ケ芝町 福榮本舖

Columbia
不朽! 이傑作盤!!
아득한 千里길 (四〇六二二) 蔡奎燁



今も 昔も
效能 上氣를引下하고 便通을잘함 梅毒淋疾諸毒을除함
効能で賣れる 七ふく ひえぐすり
大阪高津表門筋
本家七ふくや伊藤長兵衛
振替大阪九七三·電南七二九

地溫을依支삼는 土幕民萬四千名

阿峴里、老姑山新住地도尙今未完成

貞陵과弘濟里에新部落建設

가로수(街路樹)의입사귀가 누러케 시들어서 서울의 가을은 위선 움집에 사는 사람들의 살결에 아푸게 기퍼간다 무서운 엄동은 닥처오려는데 추위를 피하고 내집은업고 오직 땅을파고서 미미한 지온(地溫)에 한겨울동안의 목숨을 마끼려는 토막민(土幕民)은 경성부내외에얼마나되나? 경성부 사회과의 최근의조사에의하면、

東大門署管內	二八○四戶	一二六六八人
龍山署管內	二四四戶	一○四五人
西大門署管內	一一○戶	五五○人
鍾路署管內	一六戶	五三人
本町署管內	六戶	二五人

도합 삼천일백팔십호에 일만사천삼백 사십일명의 다수에 달한다

소화칠년부터 시작하야 경성부에서는 이미 경기도와 연락하야 아현리(阿峴里)에 일천호 약오천명과 로고산(老姑山)에 삼백호 오백명 가량의 토막민을 경성부내외로부터 이전시켜서 수용하야 새부락의 건설에 착수하고잇스나 아직건설의「푸로그람」이 미완성대로 남어잇는 이색키나안에는 안주(安住)의꿈이 맺치지못하고잇다 경성부에서는 대경성의 실현까지에는 이경성주위의 토막민을 처치해야할것이므로 이에대하야 늘머리를알코 잇드니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의안을 기초로하야 금후사개년의 계속사업으로서 정능(貞陵)과 홍제리(弘濟里)에 역시 토막민의 신부락을 건설하고 매년일천호가량식 이주시켜서 생도와 교회의 지도알선을하리라한다

에피해액이 삼천원에 달한다고한다 그동안 경찰부에서는 각처에 지명수배를 하엿든데 실종일에 영등포서원의 손에 체포되엿다 라고한다

六十老人自殺

륙십로인이 생활난으로 자살하엿다 인천부화정리(仁川府花町里)정순(鄭順)(六?)은 지난 저녁여섯시에 시내 화정정이번지 리무현(李武鉉)의집에 륙숙하고잇든중 단도로서 목을 질러 생명이 위중하게 되엿슴으로 시내 중림동 서경의원(西京醫院)에 데려다가 치료를 시켓스나 실혈이 되여 절명되엿다 죽은 원인은 생활난으로 세상을 비관한탓이라한다

하도성(河道成)(二?)과 홍용(洪龍)(二?)량 서대문경찰서원 두명은 모다 요지음에 시내에 금시계를 금메달 동쪽과 기타 지갑등을 닥치는 대로 다수히 훔쳐다한다 그런데 갑이는 금메달다섯개는 누구의 것인지도 알수업서서 형사실책상우에서 그냥번적거리고 잇다한다

平壤中心으로 貨物이大輻輳

滿浦平元線開通으로

【平壤】평양역구월중순의승객차 인원은팔만이천구백구십사명、내리사람수는 칠만칠천구백구십팔명이 려객수입은 만이천이백십사원 확실전원은 작년동기와 비교하면 전부가일할이상의 증가이다 소화물(小荷物)수량은구천 사백륙십이개로 작년보다 실확 개가 감하엿스나 반대로 수입에 잇서서는 작년보다 오할확 에 달햇다 그리유는 은괴(銀塊)송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발송은 구천삼십삼키로톤으로 작년보다 천오백삼십삼키로 돈의 증가인바 원인은 일반경제계의 호황과 평양의상권의신장과 시세의고저에 따르는 정조(正租)소맥(小麥)의 발송량이 만하기때문이다 도착은 이만칠천구백구십삼키로톤으로 이것도 작년보다 이천칠백구십이키로톤의 증가인바 이것은 일반재계의 호황에 반하는 잡화(雜貨)이동이 극히만흔것과 건축재료의 왕래가 왕성하엿기때문이다 화물의 수입은 작년의오만이천이백팔십이원을 상회할것가히틀파하며 륙만사천백칠원이란 경이적숫자를 나타내이엿다 이래서 평양역은 무서운 형세로 발전하고 잇는 평양부세의 진전과 만포선(滿浦線)평원선(平元線) 의 연장등으로 거래하는 려객 화물은 증가할뿐이나 역사(驛舍)의 협착으로체면상은물론 능률문제로 보아서도 개축해야겟다고한다

장님을毆打하고 暴行罪로送局에

십구일 오전한시반경에 시외돈암리(敦岩里)사백칠십삼번지의사호에사는 자동차운전수 장태운(張泰云)(三?)과 시내 현저동(峴底洞)사십륙번지의 상백십륙호에 사는 김종현(金鍾鉉)(二?)이라는 로동자가 작당하야 시내인의동(仁義洞)사백이십일번지 정구련(鄭九連)음식점에서 가리(술)을먹고잇던 시내림정(林町)일백사번지사는 장님김순배(金順培)(?)에게 자즐을걸어 눈멀은 장님을 란타하야 몸에큰 상처를입히자가치잇던 오륙명의 주객들이 장님편을 동정하야 편싸홈이 되엿섯는데 전긔 장태운과김종현은 소관동대문서(東大門署)에 폭행죄로 인치되여 목하엄중한취조를 밧는중이다

傳染病保菌者

三十二名發見

총독부위생과에서는 당국에서 맹렬한 방역(防疫)을 하고잇슴에 불구하고 의연히 장질부사는 창궐하야 다수 환자와 사망자를 내이고잇스므로 그원인에 대하야 연구한결과 장질부사보균자(保菌者)가 미균을 뿌리고 다니는것으로 알고 경성부내에서 보균자의 발견에 노력한결과 삼십이명이라는 보균자를 발견하엿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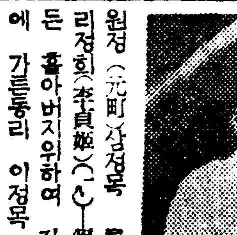
몸만버려주고간 十萬長子薄情郞

結婚한뒤알고보니有妻子旣婚男

밋지못할『빌리야드』戀愛

십구일오전열시쯤되여 룡산서(龍山署)사법계에는 청초하게차린 고혼소부한명이 자기의형되는여자를 짝하여나타나서 원망스럽게 자기를 바차버린 사나이를 불러다가 동거하도록 설유해달라고 눈물에 어린눈으로계원에게 호소한바 잇섯스니 이눈물의 주인공은 부내원정(元町)삼정목 륙십팔번지 리정희(李貞姬)(二○)ー假名ー로병든 홀아버지우하여 작년칠월경에 가든동리 이정목 관동구락부(關東俱樂部)라는『빌리아드』집에 가서『계임』을 보고잇든동안 우연히 그곳에 손으로 왓든부내 남대문통(南大門通)이정목에사는 십마장자인 김홍직(金弘稙)의 아들영조(永祚)(二○)ー以上全部假名ー란 청년을 알게되는동시 어린두남녀는 남모르는 사이에 정이들게되자 그사나이는 자기는 아즉독신이니 결혼하여 정식부부가 되자고 달래는바람에 리정희는 이것을 곳승락한후마츰내 작년칠월경에 부내모 식장에서 호화로운 결혼식을 거행하게되엿다

그리한다음 현재리정희가 거처하고잇는전기장소에다가신처살림사리를차리고 약반년동안이나 오붓하고 자미잇는부부생활을 하여나려오다가 올봄에 이르러서야비로소 그사나이게 버젓하게 안해와 소생까지잇는것을 알고그동안 속여온것을 책하엿스나때는 이미 그에게 몸을 바친뒤이므로 꺼여진그릇과가티 자기의 신세만 오죽한탄하고때때로흐르는눈물한숨을 갈소와가며그대로 잇는 정성을 다하여 그사나이를밧들기로 한것이다 그러나 김영조는 그후방탕한생활을 계속하는 한편생활비도 죽거럼대주지안코 며칠에 쌀한 두되식바게는 안주는데다가 벌서 그에게는 사랑의씨가 매처저 날로몸이 묵어저 이미 넉달이나 되엿건만 이것을 안뒤부터는 일체 발을끈코 찻지도 안코 그의 상점으로 차저가 몃번이나 맛나려하엿스나 꼿내피하고 맛나주지안흐므로 나종엔 그의 아버지되는 김홍직을맛나 자기의 사정을 애소해보앗스나 그도 또한 랭정한 태도를 보이며 닥처올 추위를 압두고 살길이 막연한즉 그사나이를맛나게해주는동시 그로하여곰 마음을 돌리게 설유해달라는것이다



원정(元町)삼정목 륙십팔번지 리정희(李貞姬)

四時常備의胃病靈藥 / 藥效如神 / 太田胃散 / 東京太田信發藥房 / 各地藥店에서發賣

東海北部線

來月一日開通

高城杆城間卅八'키로'

조선국철(朝鮮國鐵)동해북부선(東海北部線)중 고성(高城)에서 간성(杆城)으로 가는 삼십팔킬로의 구간의 새선로는 드듸여오는십일월 초하로날부터 개통하야 그운반영업을 시작하기로되엿다는데 이번 이개통에 따라 안변(安邊)을 긔점으로하야 이선로의 연장은 한게일백 오십킬로삼분으로서 긔설된 고성(高城)역에서 남강(南江)을건너서 감호(鑑湖)간을 지나 초구(草邱)에 닷고 그곳에서 대체로 일본해를 남하하야 저진현(猪津縣)안을 지나 거진(巨津)으로 나와서 간성에 닷는다

울타서 소매치기패가 시내에 만히 드러와다한다 경기도 련천군 적성면 어유지리(漣川郡…)

이편江둑向하야 土兵이一齊射擊

警官隊가越江하야追擊擊退

慈城法洞駐在所對岸에서

【警務局着電】십팔일 오전오시 십분경에 점산(占山)쌍표(雙標)에위한대한 무장단 약삼십명이 평북자성법동(慈城法洞) 주재소의 대안인 즙안현대수지대(輯安縣大水地臺)를습격하려고 두대로 나노혀 한대는 그곳시가를 뒤로부터 대수지대와 조선측에 향하야 일제히 사격을개시하고 한대는 그곳경찰파출소에 향하야 일제히 사격을하야 방화함으로 법동주재소 미원(梶原)부장이하구명은 강안의 방란병과 망루(望樓)로 부터 약삼십분간 이나 교전하야 무장단을 격퇴하엿는데 무장단은 도망할때에 돌에싸혓든 로적(露積)에 여섯곳에 방화함으로 미원부장외 구명은곳 출동하야 도주한 무장단을 격퇴하엿다 경관대는 그리고일단 조선측에도라왓든바 오전구시경에 사도구(四道溝)로부터경사(警士)십명을 급파하는도중 두도구(四道溝附心溝)에서 전긔무장단과 충돌하야 무장단에 포위되야 고전을 하고잇다는급보를 접하고다시 미원부장이하구명은 곳경긔관총을 가지고림경하는 동시에 자성서로부터 소야사(小野寺) 경부보이하 팔명도 법동주재소로 응원차출동하엿다

三千餘圓詐欺漢

경찰부형사과에서는 십팔일오후에 영등포서(永登浦署)로부터북해도(北海道)출생 전과이범 일명송본웅(松本勇雄)이라고도하는 공등정(工藤正)(三七)을 압송하여 가지고 엄중히 취조중인데 그는 작년구월에 복도(福島)형무소를 나온후 자성현결성정(茨城縣結城町)관동지방경마장(關東地方競馬場)기수로 잇스면서 가등(加藤)모를속여 삼백팔십원을 먹은것을 비롯하야 경도(京都) 청삼(青森) 록아도(鹿兒島)등 십여곳에서 기수라는 수의라고하는 사기를 햇다 그뒤에 만주로 건너가서 봉천(奉天) 신경(新京)각지에서 사기를 하다가 조선에 드러와서 정주(定州)개성(開城)인천(仁川)군산(群山)부산(釜山)성환(成歡)각지에서 역시 사기를 햇고

소매치기團販屬

요지음 서울시내의 번잡한 틈을 리용하여 …

長時間에亘한 被告等自己辯護

咸興서開廷된朝鮮共産青盟事件

言渡는來二十五日

【咸興】조선공청동맹(朝鮮共靑同盟)사건재삼회공판은 작보와가치 최고십년 최하일년의 구형이 끗난후 이어변호사의 변호에 들어가 의연공개금지속에 오후 령시반까지 신태익(申泰益)채용묵(蔡容默)량변호사의 변론이끗난후 일단휴게하엿다가 다시오후한시부터 속개하여 류해문(柳海文)변호사의 변론이잇슨후 피고중정태옥(鄭泰玉)등십여명의 장시간 자변이잇섯다고하며 오후륙시에야 폐정되엿는데이십오일로 결정되엿다 이날도역시전일과가치 피고들의 친척등오륙십명이 일흔아침부터 피고들의얼굴을 한번이라도 볼려고 벌서 엄동을예상하는 치운바람을 무릅쓰고 종일 재판소밧게서 떨고잇섯다

連三年凶作으로 六百餘戶가離散

咸南長津郡下의慘狀

【咸興】련삼년흉작지 장진군(長津郡)은 벌서부터 령하사오도되는 엄한으로 식량에 결핍되여 금후연명이 극히우려되는터로 이곤올에서는 비교적 평원지대로서 수전공사(水電工事)의 영향을 밧고잇다고하는 중남면(中南面)의 리재민상태를보면 작년구월경까지 전면내에 천호이상이되는것이 작년까지 련삼년흉작으로 리향(離鄕)한호수가 륙백여호로서 현재는 일자사백여호밧게 안되는데 그중에서도겨우마령서(馬鈴薯)가튼 대용식물로 연명해가는 호수가오백여호라고한다 그외천여호도 삼개월이상 계량할것은 볼과수십호내외간이라고한다

달이 한상신이명에 대하야는여중한방역 방법을 실시하는동시에 일방 위생과의 횡산(橫山)박사가 중심이 되야 보균자 발견에노력하는중이라한다

運動競技

十三道代表 庭球對抗

白熱戰展開

神競一般各道對抗庭球戰은 十九日 午前九時半부터 京城運動場 AB兩코ー트에서열리엇는바 各道代表戰이만큼 技術伯仲하야 開戰劈頭부터 白熱戰을演하고잇는데 이날夕刊마감까지의 各道戰績은 다음과갓다

【第一回戰】

【全南】【京城府】勝
×(松長甫 孫京鎬)3…4(黃基成 渡邊)○
×(鄭宰模 裵在鎬)1…4(洪承武 朴龍善)○
×(趙斗欽 張茂烈)1…4(熊野輝 織田仁)○

【黃海】勝【慶南】
○(吉武 金明平)4…2(沈瑞燮 川上)×

【第二라운드】
×(金應泰 金永俊)1…4(姜錫植 永井)○
○(小山 田)4…2(大平 島川)×
○(吉武 金順平)4…3(永 井)×

【忠北】勝【平南】
×(吉村 申東浣)0…4(吳錫浩 吳錫浩)○
×(能勢 李春雨)2…4(金泰植 李鍾鳳)○
×(矢田 森)2…4(鄭元鳳 韓成春)○

【咸南】
×(康敬行 崔錫益)2…4(李敏得 安友)○
○(金谷洪 尹鍾燮)4…2(朴用善 劉在應)×
○(鄭仁秀 梁在律)4…3(李聖述 兒島)×

【第二라운드】
○(尹鍾燮 金谷洪)4…2(李敏得 安友)×

【忠南】【咸北】勝
×(姜鍾元 森川)1…4(加藤 柴田)○
×(姜錫鎬 尹興重)1…4(張善 朴炳實)○
○(崔今用 金俊根)4…0(張昭 馬相淵)×

【第二라운드】
×(崔今用 金俊根)3…4(加藤 柴田)○

【全北】【京畿】勝
○(金斗鎬 金種岩)4…3(李觀基 松田)×
×(李顯章 朴九均)0…4(威炳文 朴奇元)○
×(朴山 洪東植)0…4(洪承木 淺野)○

【第二라운드】
×(金斗鎬 金種岩)1…4(威炳文 朴奇元)○

平壤女高排球快勝

神競女子中等部排球準決勝… 平壤女高對龍谷 京城女高對第二高女戰은 十九日午前十時半부터 京城運動場 AB兩코ー트에서 열린바 戰績은다음과갓다

平壤女高 2 (21 21 19 / 16 18 21) 1 龍谷女高

第二高女 2 (22 21 / 20 10) 0 京城女高

專門部籠球

神競籠球高專部準決勝의 延專對法專戰은 十九日午前十時二十分부터 京城運動場에서 鷲尾、大草兩氏審判下에 開始된바 百二對十三으로 延專軍大勝하엿다

延專 102 (56 46 / 10 3) 13 法專

普專 62 (30 32 / 7 14) 21 大豫

普專對城大豫科準決勝戰은 同午前十一時二十分부터 鹽崎、大草兩氏審判아래 開始한바 六十二對二十一로 普專快勝하야 決勝戰에 延專과 對時케되엿다

藥專蹴球大邱遠征

京城藥學專門蹴球部에서는 大邱府 都逢涉氏引率아래 二十日午後三時 出征할터이라한다

男女一般部

陸上戰績

新記錄續出

神競男子一般及女子一般 陸上選手權大會는 十九日午後零時半부터 京城運動場에서 開始되엿바夕刊마감까지의 戰績은 다음과갓다

【六十米女子豫選】▲A組1松本(新女)九秒一 2丸山(女實)▲B組1山川(光高)八秒七 2桃葉(新女)▲C組1鎌倉(二女)八秒五 2樋口(元女)▲D組1小西(新女)八秒五 2金吉德(女師)八秒八 ▲E組1佐佐木(一女)八秒三 2鄭仁愛(平女高普)八秒五▲F組1竹內(元女)八秒六 2井村(女師)

【百米男子豫選】▲A組 1韓喆璿(遞信)一一秒三 2金裕澤(平南)一一秒五▲B組 1金萬式(平南)一一秒六 2金珍洪(全南)一一秒一▲C組 1李英敏(一高)一一秒七 2國鎭(黃海)一一秒二▲D組 1宋壽鳳(忠南)一一秒五 2尹癸述(黃海)一一秒七▲E組 1金昌會(慶北)一一秒七▲F組 1中出(高商)一一秒八 2金甚樂(黃海)一一秒二

【四百男子豫選】▲A組 1金鐵元(鐵專)五四秒八 2金相榮(俱)五九秒五▲B組 1吳相奭(慶北)五三秒七 2金仁植(遞信)五四秒一▲C組 1安永載(俱)四秒 2劉炳(鐵中)▲D組 1洪瓚植(黃海)五四秒 2李完榮(平南)五四秒五

【投擲丸男子決勝】1蔡貞(遞信)一米六六 2松崎(高商)一一米五五 3小林(咸南)一一米四八 4

【二百女子豫選】▲A組 1千葉(新女)八秒五 李俊甲(總府)一一米三八 ▲B組 1下田(元山)三十秒 2尹德祥(沙里)二八秒 ▲C組1金化善(平女)二九秒八 泳實(同德)二九秒三 ▲D組

【高跳決勝】▲A組 山本(朝鐵)一六秒(本大會다記錄)2柴田(仁商)3蘇綏南(一高)▲B組1金煥民(俱)一五秒八(本大會新記錄及朝鮮다的錄)2李章定(黃海)一五秒九(本大會新記錄)

【千五百米準決勝】▲A組1白圭福(朝鐵)四分二○秒一 2尹光鎬(平南)四分二二秒四 3韓日進(咸北)4林容權(黃海)▲B組1池永順(平南)四分二一秒2鄭有錫(黃海)四分二四秒四3金鐵植(黃海)四分二四秒四3金鐵植(黃海)4李正根(朝鐵)

【女子六十米豫選】▲A組 1鄭仁愛(朝鮮新記錄)(平女高普)八秒二 2小西(新女)3樋口(元山)▲B組1佐佐木(一女)八秒 2小川(木浦)3竹內(元山)

【百米準決勝】▲A組 1金裕澤(平南)一一秒三 2韓喆璿(遞信)

3孫壽鳳(忠南)▲B組 1金昌會(黃海)一一秒三 2李英敏(一高)3金萬式(平南)

淑明籠球決勝에

進明善戰惜敗

女子籠球準決勝… 淑明女高對進明女高普戰은 十九日 午後一時十分부터 鹽崎、大草南氏審判아래 開始되바 悲壯한接戰끄테 十五對十一로 淑明이 이겨 決勝戰에드러가다

淑明 15 (9 6 / 7 4) 11 進明

【淑明】洪小姐 洪淑勝 李貞姬 金德順 尹炳姬

【進明】李英熙 姜榮順 金畢女 鄭仕學 尹德珠

鐵道排球優勝

排球男子一般部決勝!鐵道對遞信은 다음스코어로 鐵道가優勝하엿다

鐵道 2 (21 22 16 / 18 20 21) 1 遞信

龍中4A 仁商3

神競中等野球準決勝의 龍中對仁商戰은 十九日午後零時八分부터 京城運動場에서 中川(球) 中原 田原三氏審判下에 仁商先攻으로開始되바 結局四A對三으로龍中勝

仁商	102000000	3
龍中	02001010A	4A

4A—3

『러쉬·쇼』本社來訪

徐廷權君의對戰者러쉬·쇼選手는 黃乙秀氏案內로 十九日 本社를 來訪하엿다(寫眞左는 黃乙秀氏 右는러쉬·쇼選手)

本社見學

십팔일 다음과가튼 본사견학이 잇섯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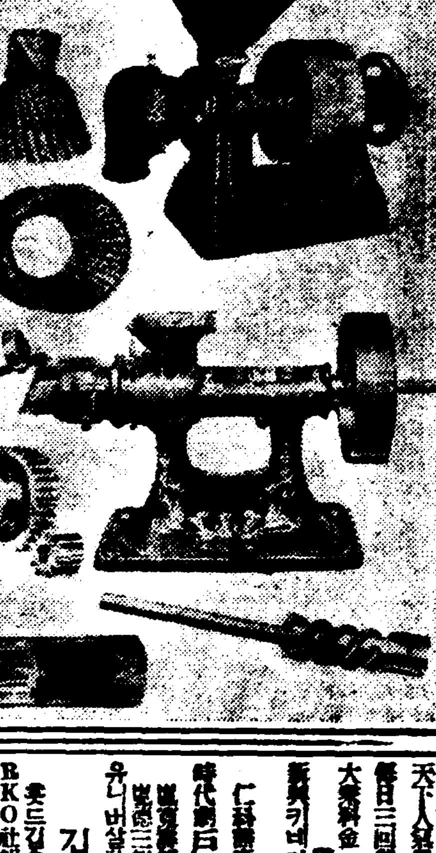
▲鳳山岐陽普通學校 一二二名 姜遇聖先生引率 ▲全州新興普通學校 四三名 ▲延白彰維學校 四十名金榮得先生引率▲槐山牧渡普通學校六十七名 金洪植先生引率

天氣豫報

曇一時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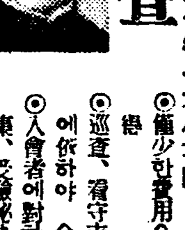
七四四『미리』와七四六『미리』의 弱한低氣壓은 日本海北部와北海道北東海上에잇고 또七六○『미리』의弱한低氣壓은揚子江과天津北部에잇다 高氣壓은揚子江上에서北滿으로퍼지고잇는데七六二『미리』를보이고잇다滿洲、朝鮮은晴天朝鮮에서日本內地에晴天이 처서날이흐리고 樺太는晴天이다

昨日最高	一七、六
同 最低	八、五
今日正午	一六、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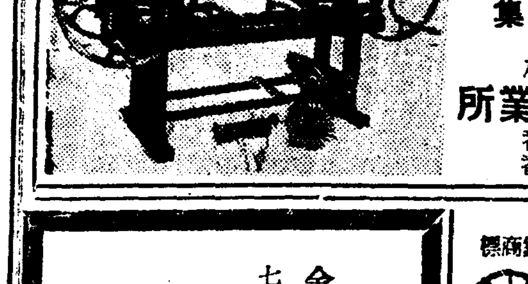


精米機·精粉機 一機械附屬品
카타로그進呈
京城府岡崎町九二 電話龍山九六五番
二和商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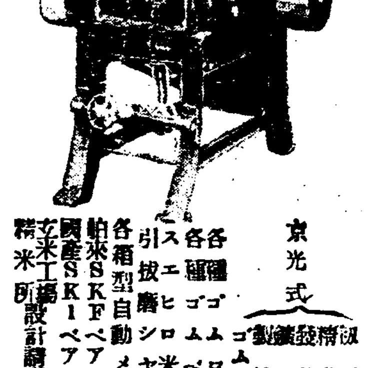
● 頭痛에 はれやか 하레야가
￥.30 ￥.50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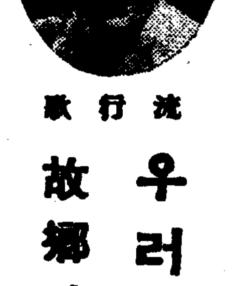
巡査 看守
▲目下巡査大增員計畫과 鮮人看守募集中
◎僅少한費用으로巡査、看守受驗準備가完成
◎巡査、看守志願者는 本會講義錄卒業에依하야 合格保證
◎入會者에對하야 試驗問題集、新稿法規集、受驗秘訣三冊을 無料進呈함
◎有意人諸君은今이絶好의 入會機、勿失好機入會하사 官界의登龍門에 올느소서
請求次第規則書即送
京城府永樂町二丁目 朝鮮警務學會 電話本局(2)三○二○番



クフイダ 高級 石油·揮發油型 發動機
北村式製麵機
各號手廻機
各種動力機
附屬機部分品
在庫豊富
付トッツネグマ轉輾 3½ 馬力—12馬力
在庫豊富 特約店募集 (呈送錄型)
京城府黃金町二ノ一八
北村鐵工場營業所
電話本局三五一八番 振替京城二二四六七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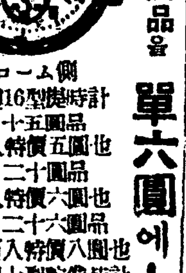
京光式
精穀發動機 米山粉機 (ゴムロール) 各種ゴムベロートル 各種ゴム米撰機 引抜スエヒシャフト 各種型自動メタル 舶來SKFベアリング 國産SKIベアリング 玄米工場設計請負 精米所一式
京城府岡崎町七一 (岡崎町電車停留所前)
李光淑鐵工所
京光社營業所
主 李光賢
電話長龍山九六二番 振替京城一三八一五番 電略(ケ)又ハ(ケイ)



半島의名歌姬 미스·리ー갈
이는果然누구일가?
一二九八一
流行歌 우러도우러도 故鄕아잘잇거라
一枚八十錢
콜럼비아大衆盤리ー갈레코ー드

訃告
金奎澤氏夫人鄭賢淑女史以宿患今月十八日午後七時五分不幸別世玆以訃告
發靷 十月二十日午前十一時 京城府崇三洞一二四番地自宅
葬地 弘濟院火葬場
護喪 金仁英

登錄商標 거북선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서울고무工社 電光一一五九



十個年保險付
二十餘圓品을 單六圓에!
時間正確、體裁優美、絕對責任付
クローム側 瑞西製16型腕時計 時價十五圓品 七石入特價五圓也
時價二十圓品 七石入特價六圓也
時價二十六圓品 十五石入特價八圓也
◎瑞西製十型腕時計 小型女子用金側代用 時價二十八圓品 特價十五圓也
◎十八金代用側腕時計 時價二十圓品 特價六圓五十錢也
(以上クサリメタル付)
特價四圓五十錢也
合名會社 三一洋行
新義州初音町二番地 電話(長)二四五番 振替京城二四一二三

建康을追求함에는 世界的強壯劑 네오톤토닉으로 隨時服用하시오!
柳韓洋行

交際가마놓은 はれやか
二日醉 빨수업다
￥0.30 ￥0.50 ￥1.00

第一劇場
十月十九日부터三日間特別大公開
天下人氣를獨占한日本大名優一時上映
每日三回興行 正午十二時、午後三時、同七時半開映
大衆料金 椅子席二十五錢 階下席十錢
新興키네마社提供
仁科熊彦氏 監督
時代劇 戶並長八郎
嵐寬壽郎主演
吉本三郎、鈴木澄子助演
유니버살社特作西部活劇
김손의大功名
켄·메이나드氏主演
RKO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空中戰爭劇 空軍의覇者
리차드·딕스氏 에리사벳드·아렌孃 主演
佛國空中의一大殺戮戰!世界大戰에依하야 時期를모르지마시고이巨大壯觀을…
電光二○三番 觀喜町四丁目

朝鮮劇場
十九日낫부터
晝間一回映畵靈高實演
晝間二回限하야 觀覽料 階上二十錢 階下十錢均一
파라마운트社超特作日本版
스테이브로바ー스監督
六月十三日의夜
異性의嫌疑로犧牲을加한男子는 갓좀疑心의실마리가풀려서青天에 無罪로되여 가서 부터人間들에게 늘…
松竹키네마社超高級篇
大阪每新日日新聞、東京日日新聞連載
原作北村小松脚色 衣笠貞之助監督作品
꿋업는鋪道
忍節子 主演
藤田泉前의울ー스타ー가스는文藝作品으로青春의運命을描寫한
新人間의開拓篇
十九日夜間부터
藝苑座大公演
名作의隨筆、양력세 웃는人生
初日藝苑의聖堂의藝術劇場大藝의圖
本、藝術、藝苑...
新의本營
仁寺洞
電光三六

聖畫 【8】

李孝石 作
安夕影 畫

란야의마즈막마듸가 이상하게도 마음속에 저저들며 나는 곳 나의경솔한거동을 뉘우첫다。 그의말맛다나 도리혀 그에게 수상한늣김을 주엇슬것을 생각하면 붓그럽기도하얏다。「골부천」의 낫작에다 제손으로 흙을께언즌셈인을 생각하면 치가떨녓다。

순간 상긔되엿든 란야의얼골빗이 즉시풀어지고 아무대거리도업시 온순하고 침착한 태도로도라간것도 나에게는 도리혀 심히 겸연쩍은노릇이엿다。 그의 목소리조차 부드럽다。

「말이과햇다면 용서하세요。 유례에게대한 제넉식만 곳치면그만안예요。 모든것을 엣동지에게 대한 존경으로 돌녀보내면 그뿐안예요。──어서 려행이나즐겁게하서요。 바다생활이나 자미잇게하고 도라오서요。」

란야가 이러케 좃어지면 좃어질사록 나는 더욱 겸연쩍고 나의 흥분의 리유가 어데잇섯든지를 리해하기어려웟다。 차라리 그의회제가 빗나가 피차의 주의가 다른방향으로 다음과가튼 그의제의는 나를 괴롭히는것이아니오 도리혀누구그럽혀주는 효과가잇섯다。

「유례의말이라면 놀나서도 제말이라면 놀나시지안으니──어데 얼마나 랭정하신가 볼까요。」

「또 무슨작란을하랴고。」

「오라간만에도라와도 놀나지안으며。 짜증을내도 놀나지안으며 목을불어도 놀나지안으서──。 엇더케하면 놀나신단말예요。」

「엇더케든지 놀나게해보구려」

란야는 문득 새로 그와는다른문제를 꺼내는듯이 어됴를갈아 침착하게 말줄을돌엿다。

「……사나희가잇서요。 항산도업고 할일도업는 거리의 가난뱅이。 설마 금뎅이가우러날가하고 바단것은아니엿스나 풍신이 앗가워발에채우는 돌맹이를 줍는셈치고 주어올녓지요。 틀은만한술미덧드니 차차알고보니 초라한신세에 벼까지폭씨엿서요。 어차피 거리의죄겟지만 이상하게도 그런신세임으로 마음이 더욱쓸님은 무슨까닭인지요。 회복되여야할바다에서는 도리혀 피를게웟서요。 깃봉의바다가아니오우울의바다엿서요。 병세는 날로더한것갓고 가난은 물가리 새여들고 ──괴구한인연을 어쩌면 조와요。」

「옛날이약이로 돌어야올송 란야의현실로돌어야올켓소。」

장황한 그의이약이에 나는얼마간 현혹한늣김이 업지안엇다。 란야의어조는 확실히 애원하는듯도한 부드러운것이엿다。

「처분대로하세요。」

「이약이라면 차라리 소설책을 읽는편이 낫지。」

「소설가아닌제가 자미잇게 이약이할수야잇나요。──이 무미한이약이를 엇더케전개시켯스면 조켓서요」

나는 더 롱담을계속할수도업서 진담으로돌아가며

「항손이 그런죽장부인술은 몰낫구려。 부랑스런 거리의깽으로만녀엿드니 듯고아니 병든 이약이의 주인공이란말요。 가련한 약질의지고로」

동정의어조일지언정 물론 모욕의어조는아니엿다。 한참이나잇다가 란야는

「아까 엇더케든지 놀라게해보라고말씀하셋지요──지금 이자리에 문득 항손이 나타난다면 놀라시겟서요」

「놀라기보다도 진저리가나겟소 아에 그런연극은 꾸미지마오。 헝숙한 병든얼골을 구지 내게 보일필요가잇소」

손을들어 굿게사절하고 나는 말을니엇다。

「해결의길은 한가지밧게업잔우 내겐 그이약이속에참예할 권리도 의무도업스나 됫수만잇다면 조케 처리하는것이 국외자로서도 깃거운일임에는 틀님업스니까」

하면서 책상설합을열고 여러되는 예금통장중에서 하나를들처내다。 내용을살필필요조차 업슴으로 그대로 란야에게 내밀엇다。

「한 반년동안의 료양비는될것은 될수잇는대로 한적한곳에가서 회복에힘쓰도록하이 조흘것요」

그것이 바란것이런선도 란야는 한참동안이나 넉을일흔것가티 서잇슬뿐이엿다。

「엇더케하면 감사의뜻을 나타낼수잇슬가요」

천치가티 우두커니서서 손을 가늘게떨면서──이윽고 눈섭끗테눈물이매치며──이것이 그의 나에게대한감사의표현이엿다。

나는 문득 란야에게서「운명의녀자」를 본듯하얏다。 니어서 곳 내자신이 더한층운명적놀음꺼들앗다 란야가 항손을밧들듯이 나는 그란야자신과 아울너 유례까지를 섬기는셈이아니엿든가。 실로 마음속에는유례의그림자가 엇슴으로 나는 란야에게 대하야 그와가튼 너그러운태도를 가질수잇게되엿슴을 깨닷고 가상은 붓그럽게 수울그렷다。 그러나 백지장가티 핼숙한 함손의얼굴목전에보지안코 지낫것은 다행이엿다고 마음한편으로는 은근히깃버도하얏다。

十九日 (土)

◇午後六時 齊唱 綠羊會
◇同六時二五分 記念講演 二宮尊德 李俊興
◇同七時三〇分 科學講話 朝鮮의鑛物(二) 朴東吉
◇同八時 歌曲 一、羽調初數大葉 二、羽樂 三、界樂 四、界樂 五、編 金界、金晶、崔珠、金水淳、金明根、金相宇、金永一
◇同八時三〇分 洋琴 大笒 杖鼓 平愁心歌外 一、平愁心歌 二、엮음愁心歌 三、孔明歌 四、寒鴻歌 五、노래가락 鄭錦紅
◇同九時 唱劇調 一、短歌 玉 權紗窓 二、唱劇調 春香歌中 獄中 뻥모고비는데 鼓手 韓成俊 卞相錫 趙相鮮

二十日 (日曜)

◇自午前一一時二〇分(東)野球試合實況
◇至午後六時〇分 東京大學野球聯盟리─그戰─明治神宮外苑野球場으로부터中繼─
◇同六時 童謠齊唱 綠羊會
◇同六時二〇分 兒童日曜新聞
◇同六時三〇分 心田開發講話 朴聖權
◇同七時三〇分 라듸오드라마 하믈렛트…(쉑스피아原作 李雲芳譯)…二幕四場…
라듸오、푸레이미─링
演出─朴 珍
效果─劾 果 班
◇同八時二五分 (東)室內樂 소나타 D短調 브람─스作曲 알레그로 운포코프레스토・에・콘센티멘트 프레스토・아지타─토
빠이올린 安藤 幸子
피아노 레오시로타
◇同八時五〇分 將棋打鈴外 一、將棋打鈴 二、바위타령 三、興打鈴 四、달거리 崔貞植
◇同九時一〇分 和謂 金福順

二十一日 (月)

◇午後〇時五分 하모니카二重奏 一、底曲「돗수리」의집…이센만作曲 二、丹舞曲「恍惚」…알버트作曲 三、歌劇「카르멘」中에서…비제─作曲 四、「바닷드의首長」…부알르作曲 五、아르르의女子中에서…비제作曲 파란돌 金波圓 宋一九
◇三時十五分 常識講座 頭髮이야기 鄭一千
◇同六時 童謠劇 허수아비 全一景 鄭寅燮作 (配役) 玉姬…尹仙姬 織母…金龍燮 아버지…金泰晳 허수아비…白鈴 참새一…元裕珏 同二…尹喜永 同三…崔仁化
朝鮮兒童藝術研究會
◇同六時二五分 經濟解說 貿易朝鮮의展望 解說 毛麒允 韓昇寅
◇同七時三〇分 記念講演 大成節과우리의感想 伴奏 元致升 張齊
◇同八時 重調歌談 寧越斷腸曲 唱演 玄哲
기타─伴奏 張明浩
◇同八時三〇分 (東) 管絃樂 交響曲O長調 쥬피터─ 모─차르트作曲 一、알레그로、삐빠─체 二、안단테、칸타빌레 三、메누엣트、알레그렛토 四、終曲、알레그로、몰토 張明浩
新交響樂團
指揮 레오니─드・크로이차─
◇同九時 伽倻琴併唱 一、短歌 어화靑春 二、唱劇調 水宮歌 沈淸歌中皇城올나가는데 吳太石 韓成俊

曆

十月二十日 (日) 舊九月建丙戌(小)廿三日
己巳・木・房・危
●祭祀에宜함
●寒露九日(舊月十二日)
●霜降廿四日(九月廿七日)

헷수고는그만둡시다
참되고거짓업는自然스런美粧에
한거름압선近代性의表現인
헤치마크림만이
당신에게美肌工作을約束하는唯一한方法!

늘젊음과健康美의살결을
길너주는完全한바늬싱크림

自然美를내시려면

ヘチマクリーム
헤치마크림

70セン
50セン
30セン
特製20セン瓶 新發賣

(33─U)

本舖東京 天野源七商店

オリヂナル(오리지나루) バニシング(바니싱) クリーム(크림)

愈々(나날히더욱) 大盛況의

(여러분께열광적대환영을밧고잇는)

オリヂナルバニシングクリーム

半額返還大特賣

只今、全國販賣店에서

大瓶(定價五十錢)을사주시는분에게는小瓶(定價廿五錢)을

小瓶을사주시는분에게는別小瓶(定價十五錢)을

即時空函과交換하야販賣店에서

無代進呈!

(거저드립니다)

다시업는조흔기회이오니

곳사주십시요!

定價

大瓶 五十錢

小瓶 廿五錢

別小瓶 十五錢

特長

살결을부드럽게하고
히고도곱게만든다

一層健康美를 發揮케하는 効能

몸시도 향기러운 냄새는……

オリヂナル향수本舖의製品인만큼향수를 살결에발는듯한 조흔기분을만들어줍니다

優良한品質임으로
조곰 발르시면 됩니다
꼭 한번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株式會社 安藤井筒堂

原料香水 オリヂナル本舖

東京市日本橋區 水天宮前

史話 終南山 (21)

駱洞李景夏舊基

湖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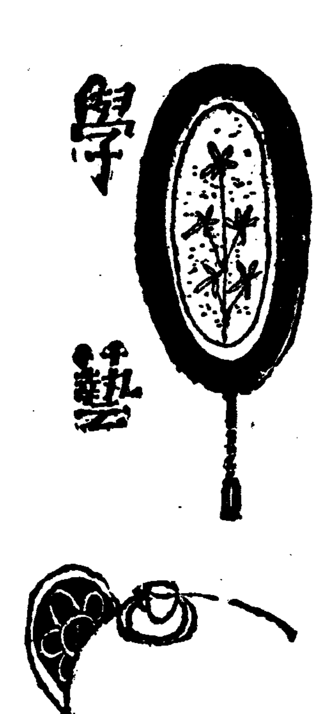
京城師範附屬學校로 드러가면 그 마비지에 中國領事館이 잇스니 이곳은 본대駱洞將臣 李景夏의 舊基임니다 李景夏라면 大院君 當年에 捕將으로 잇서서 天主敎徒를 만히迫害하든名物男이다 저번平壤天主敎會에서 同敎傳來의 一百五十週年을 記念하엿지만 天主敎가 朝鮮人 사이에 隱然히 勢力을 엇게되기는 正祖以後의 일로서 다만 祖先의 祭祀를廢하는 그敎規가 從來 孔孟이 가르친道理와 反對가 되는때문에 政府에서 이것을 邪學이라 하야 禁遏하게되엿바 무릇 前後 세번 이나 迫害를 加하엿는데 第一次는 純祖元年辛酉(一八〇一)迫害요 第二次는 憲宗五年己亥(一八三九)迫害요 第三次는 高宗三年丙寅(一八六六)迫害니 이丙寅迫害가 곳 有名한 大院君의 天主敎徒大虐殺이다 首都漢陽을 비롯하야 이大規模의 虐殺을行할새 男女老少 間에 同敎徒의 嫌疑者는 勿論이어니와 個中에는 何等의 關係업는이도 만히 羅致되어 애매하게 죽엇다 그리하야 한창적에는 每日 여러 名씩 死刑執行을 하게되어 全京城이 恐怖에 싸히엿섯다 이때敎徒들을 모라맛기는 大院君의 手足가터 信用되든 捕將 李景夏이엇든바 朝鮮近世史上 큰자랑인大院君의 鎖國을 잘實行하게되든것은 이李捕將가든 알뜰한人物이 잇서서 무서운 威嚴을 세웟슴니다 한창天主敎徒를 죽일때는 市民들이 李景夏의 이름만 들어도 치를 벌벌떨게쯤 되엇고 그가 驢馬를 타고서 지나갈적에는 누구나 敢히 처다보지도 못햇다 한다. 駱洞將臣 李景夏의 別號는

閻羅王 이라 부르게된 그네들로서는 이처럼 畏怖하는 것도 當然한 일이어니와 그의 體軀가 크지 못하나 꾀이처럼 생것고 얼마나 임독 하든지 한번 생글생글웃기만하면 사람을 죽이엿다고한다 어쨋든 그의 一擧一動은 ... 左右하게쯤 그 서슬이 프르럿다 ... 이잇는 ... 에 미처서는 ... 公事이 되어슴은 역시 奇談이라면 奇談으로 어질은 언제나 꾀이가 아니면 범이 되려잇다 마는 李景夏를 알뜰한點에서 꾀이라할진대

袁世凱 는그 點에서 暴虐스러운 범이라해도 過言이 아닐것이다 그는 과연 外國使臣中에서 交涉이行하는것도 事實이엿섯다 그러나 한편으로보면 袁世凱는 政局을 手中에서 修繕하니마지 朝鮮이 맨드러준 人物이라고 할수잇스며 그가後日에 가서 中國政局을 뒤흔드게되든것도 理由가 업는것이아니다 最初袁世凱는 壬午軍亂에 二十四歲의 弱少한靑年으로 朝鮮에 와섯고 甲申政變에 겨우 二十六歲에 不過하엿스나 오히려 ... 을 ... 하고 ... 乙酉로

甲午에 이르기까지 ... 官으로 一國公使에 비슷도한 官職을 먹고잇슴때인 때 이때駱洞 ... 나는새라도 ... 그威勢가 ... 모다 ... 르럿다 南山기슭에 마찬가지로 對峙하야잇지마는 日本公使館은 勢力이 업섯고 駱洞袁... 으로 威勢를 부리드니 日淸戰爭을 境界로 이現象이 正反對로 一變하게되엇다 이때 日本公使館이 正式으로 中國公使館이 되엇스나 袁世凱의 勢力이 업섯스며

日露戰 爭後에 各國公使館을 撤廢할때 이中國公使館도 統監府 ... 이 되엇다 李景夏以來 몃번이나 主人을 밧구게된 이駱洞의由緖집흔 中國領事館은 실로 滄桑의 感이 잇다.



學藝

批評의形態와機能 (7)

崔載瑞

大家의批評은 藝術家가自己自身의作品을考察할때에 생겨나는 批評이라고 말하얏다. 그러나 여기에 問題가잇다. 그러면 作家는 그의批評에서 陳述한理論을 그의作品가운데서 實際로履行하얏느냐? 하는問題이다. 一例를 들면『와ー즈와ー스』는 그의自然的措辭論을『에리옷트』는 그의

【個性】脫却論을 作品에다實施하얏느냐? 決코 그러치안타 그들의 理論은 늘 그들의 實際에 압섯다. 그리고 이것은『와ー즈와ー스』나『에리옷트』에만限한困難이아니다 理論과 實際의 相隔은 거의 모든 作家의 創造的 批評을 덥고잇는 運命이다 그러치만 이것으로서 그들의 意見發表가 全然價値업다고할수는업다 學者의 古典的批評이라면 理論과 實際가 齟齬에 이르기까지 一致할 必要가잇다 그것은 結局에잇서서 歷史的批評이니까.

그러나 藝術家의批評은 決코 現實에拘束될物件은아니다. 엇던 理想을勿論하고 理想그대로 實現되는法은업다. 實現에는 반듯이 缺點과病痛이附帶된다. 이러키 때문에理想이 貴重한것이아닌가? 藝術的批評家는 批評의 그리기로서 自己自身의作品을 誠實하게 觀照할必要가 잇스나 그러타고 거기서出發하야 自己의作品을 건너뛰여서는 못쓴다는法은 업다. 그는 서슴지말고 自己가 늘 理想的創作態度라고 미더오든바를 或은 期於코

【實施】하엿스면 하는『테크니크』와 形을 大膽하게告白함이조타 우리가 藝術家에 期待하는批評은實로 이가튼創造的 或은夢想的批評이다.

나는 여기서 純粹批評이라는 말을쓰고십다. 純粹詩가잇는것과 마찬가지로 純粹批評이存在한다 現實로存在한作品을 對象으로하는批評, 存在와 作品의幻影가운데에 本質的비로실을求하는批評 ー 이가튼批評을 純粹批評이라고한다. 이가튼批評은過去에도잇섯고 現在에도잇다. 그實例를現代에求한다면『포올・봐레리ー』의『레오날드・다・빈치의方法에의序論』이다. 이論文에對하야『봐레리ー』는 讀者에게 이가티말하얏다 ー 그의『레오날드』는 實相의『레오날드』가아니다. 天才의 어떤理念이고 이理念을爲하야 若干의特徵을『레오날드』로부터 빌려온데 지내지안는다. 그나마도 이들特徵에만 自己를 限定지안코 다른特徵도使用하야 이

【理念】을構成하얏다. 『레오날드・다・빈치의 方法에의序論』은 天才의『따・빈치』와함께 살고 그創造의길을 함께 것고 그天才의可能性과 暗示를 洞察한 藝術家의손으로된 特異한 批評이다. 그것은 觀點을 天才의內部에두고 모든考察을本質에까지 還元한批評 ー 말하자면 批評의代數學이다.

이가튼批評의 또하나 조흔實例를 우리는『빅톨・유고ー』의『윌야ㅁ・쉑스피어』에서본다 이論著는 史實을尊重하는 古典學者가 본다면 秋毫도辨明의餘地가 업는 엉터리 論文일것이다. 그러나『유고ー』는 잇섯든『쉑스피어』가 아니라 잇슬수잇는『쉑스피어』를 보앗다. 그는 그 自身의 天才로서 天才『쉑스피어』를 解明하엿다. 그가 그의 內部에서 體驗하고잇든 藝術的創造의 姿態를 그대로『쉑스피어』에 드러마춘것이다. 그리고 그는 마츰 神秘家가 神을 늣기고 哲學者가存在를 늣기듯이 그는 創造를 늣긴다. 이 創造力은

【作品】을 通하지안코는 엿볼수업스나 그러나 非個人的이고 또 超個人的인 存在이다. 따라서 藝術家의創造的批評은 單純히 天才의洞察의回顧와記述이아니라 天才의洞察이고 또創造이다. 이創造的批評의 限界는 말할것도업시 主觀的인데잇다. 그러나 이批評이主觀的이아니라면 그것은 아모所用도업슬것이다. 主觀的인것은이 批評이가지고잇는『必要한惡』이다. 萬若이 그것이 참으로 天才의소리라면 우리는 主觀的인 것쯤은 닭알게알것이다.

以上에서나는 批評이가지고잇는 세形態와 밋그機能을말하고 아울러 그限界와危險도指摘하얏다. 批評엔 몃가지方面이잇고, 또그方面에서 批評은어느程度까지可能하고 어느程度以上不可能하나함을 대충이나마 論述하는것이目的이엿다. 批評의機能은 그形態에따라서 다르고 또各形態는 各其社會的必要에應하야存在하는것이다. 따라서 批評의機能을 한가지만

【主張】하고 다른機能을 排擊하는것은 結局批評에對한自己의必要만 承認하고 다른사람의必要는도라보지안는것이니 社會는 다만 한가지必要에依해서만 사는것도아니고 또 살어야할것도아니다. 社會에는 여러가지文學이 存在할수잇는것과마찬가지로 여러가지批評이 存在하고잇다. 萬一에 어떤政治的權力으로서 文學을統一할수잇다면 卽 生存의必要를 一할수잇다면 文學은 그날로 廢棄할것이다. 文學은 그리使한데에서살기엔 너무도生命的이고 反逆的인물건이다.

둘재로 批評의機能은 어느것을勿論하고 可能性과 同時에限界를가지고잇다. 엇던批評의 缺點만을 論難하는 結局 自己自身의 批評의 限界를 暴露하는 外에 아모것도 아니다 이러하야 批評의 形態와 機能에 關하야 正確한 認識을가지고 안가짐은 그批評家의 眼界에 不少한 差異를 맨드러내리라고 생각한다.

『종달새 우지질때』(金煥基氏作 二科展入選)

隨筆 小話三題 (中)

嚴興燮

萬年筆

나의가장 愛用品의 하나인『파이로트』小型萬年筆, 그것은 지금부터 八年前옛날 내가上京하든 해에 晋州에一女性으로부터 바든 선물이엿다 女性에게서 선물을 바더보기란 그것이 처음이엿고 또한끗일는지 모른다 그때의 나는二十에 겨우三四밧게 넘지안은 새파란靑春이엿다 내게 萬年筆을 보내준 女性은 當時 某地方의 小學校敎員으로잇든 S라는二十一歲의 美貌를가진女性이엿다

나는 S로부터 선물을 밧을만한내가아니엿다 그것은 S와 나사이가 그다지 親近하지못하엿기 때문이다 當時나와 S와의接觸이란 極히 平凡한것이엿스니 그의 오바인 S군을 맛나기위하야 어느해 夏期放學엔가 몃번 그의 집을 訪問한일이잇섯슬때 偶然이 S군의 紹介로알게되엿데 지나지못하엿고 그것마저 徹底치 못하야 大槪는 길에서 만날때가 잇서서도 人事以外에는 別로 假飾的用語나 表情을 한일이 업는터이엿다

그러든S와의 나사이에 S가 物件을 내게『프레센트』햇다. 實로 實在性이업는 거짓말이 外에는 아모것도 안이다

나는 S가준 萬年筆을 洋服에 꼿고 S男妹의 餞送을 바덧섯다.

나는 S가준 그때의 小型萬年筆을 지금까지 愛用하고 잇섯다.

그러든것을 나는 어느場所에서 엇저다가 紛失햇든지 하로아츰 洋服을입고 선뜻『포켓』을 만저보다가 미ー근한 感覺에 깜작놀내지안을수 업섯다.

冊床을 뒤지고 방구석을뒤지고 甚之於 벽장속까지 뒤여보고 그럴듯한곳이면 삿삿치뒤저봣스나 萬年筆의 形跡은그야말로 五里霧中이다 八年동안이란 오랜時日을 나의 둘도업는 愛用品으로서 이제 形跡조차 춤수업시 감촛을 몰으게되매 形體잇는 物件은 반다시 사러질때가 잇다는 늣김과아울러 한번만난 物件은 반다시 헤여질때가 잇슴을 새삼스럽게 늣겨지는 비록小型의 萬年筆이엿스나 그는 내게 모든精誠을 다하엿스니 八年이란 오랜時日을두고내 感情과 내悲哀를 勤勞도하엿고 制裁도해준 忠僕이아닐수업다

나는 八年間의 忠僕 萬年筆을차저 거리에나섯다 ... 내집 방구석에나 빠젓거나 그동안지내처 어느 ... 하루 ... 에 떠러지기라도 햇스면 실흠 ... 안어 ... 가 ... 을 막아 ... 그러나 赤龍 ... 을 ... 보앗다.

幸여 어느친구가 作亂으로나 ... 라리조치안을가 幸허질바닥에 떠러지더라도 ... 東나萬事의 쇠바퀴에 갈려 ... 하게깨여지지나안코 사람의손에 ... 히엿기나 햇스면......

근作이면 ... 손에 집히여 香내저트헨드빽속에서 호강을 밧기나햇스면......그러나그것은 오히려 나의 萬年筆로서 一種의 侮辱일넌지도 모를일이다

차라리 코스몰 흙은 小學生의손에 집히여『맙이가오 소가오오 고기가노오......』를 쓰고노는것이 令孃의『오라지날』냄새풍기는 하ー얀손에서 금술친 편지우로『......消風山을가요ー네? 白川을 가요네?? 그보다는 나와金剛山 이보고십어요ー』하고 다른짓치기보다는 훨신天眞하고 素朴한일이아닐가ー 九年間의 내忠僕『파이로트』萬年筆 그대는 지금어느누구의손에서 예입을 遭遇하고잇는가ー

詩 母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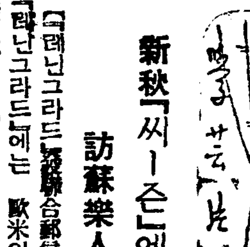
許俊

동생은 엄마를 말치아니합니다
그러나 저녁때가되여 내가 門前에 서면
고개를 숙이고 돌아오다가 그는 멀리 지나쳐갑니다

『내몸이 千斤이나되여서』
이는 또 합분동생의 잠꼬ㅅ드는 노래입니다
疲困안타는 그房에서 몰래 틀리는 소리입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낫낫치 가랏남지는 가랏나무
흐터저 오지못하는 엄마의 母體입니다
우리집 넝울보며 그고개넘어 돌아옵니다

그래도 제업품을 못앞어보시겟나이까
어머니께 들임 깁븐인사 꼽꼽 생각하고온 저입니다
(舊稿에서)



新秋『씨ー슨』에 訪蘇樂人群

【『레닌그라드』交響樂合報信】今秋樂人들이 陸續訪問해서 歐米의著名한音樂『씨ー즌』을 만드리라고한다 우선 우리도잘아는늬잡바리스트『카프카즈』의 海邊에서 餘暇를 休養하고잇스며 그다음에 西班牙피아니스트『인에프・메로리』,『알프레・코르토ー』葡萄牙의歌手『에봐・반드로ー스카・투ー르스카』黑人의歌手『마리안느・안더ー슨』그리고指揮者로는『알버ー트・코ー쓰』(英)『피에ー르・몽토ー』(佛)『데지레・데포ー』(白)等名手들만 모힌것이다. 西班牙의기타ー리스트『안드레스・세고비아』伊太利의歌手『메르세데스・카프시ー르』維也納의『오페라』歌手『엘리자베드ー만』等도 蘇聯交響樂協會를 訪問하야 演奏를 마칠것이오 希望을 말해보냇다고한다.

新刊紹介

▲實生活 第六十九號 京城府樂園洞三〇〇 實生活社發行 振替京城二一九〇八番 定價十錢

▲國際觀光 第三卷第四號 鐵道省國際觀光局內 國際觀光協會發行 定價三十錢 郵稅四錢

▲[illegible] 十一月號 京城府[illegible] 青春時代社發行 振替京城二二四五〇番 定價二十五錢 郵料一錢

▲[illegible] 第八號 京城府[illegible]路二丁目九一 [illegible]發行 振替京城一九六四六番 定價五錢

黑風 【152】

韓龍雲 作 金熊超 畵

여성해방회 (女性解放會) 6

『이상에 말슴한바와가티 혼인의 근본원리는 남녀 두사람의 사랑과 행복을 토대로하고 되것인대 근래에와서는 폐단이되야서 인정에가깝지아니한 남녀유별(男女有別)이라는 과도한 례의(禮儀)에 흘너저서 결혼하는 당사자의 의사는 조금도 도라보지 아니하고 부모라든지 혹은 다른사람의 마음대로 혼인을 정하야서 당사자들은 순전한 기계적으로 따라만가게되엿스니 그것이 얼마나 인정에 가깝지아니한 일입니까 혼인이라는것은 남과 남 새이에 맛나서 평생을 가티 살자는 것인데 그러자면 서로 외모에대한 인상도 조와야할것이고 성격이라든지 취미라든지 기타여러가지가 서로 마저야 할것이오 가사 남과남 새이의 입이라 조금도 틀님업시 마질수는 업다할지라도 그대부분은 맛지아니하면 아니될것입니다 그러한데 혼인의 당사자끼리는 서로보지도 못할뿐이니라 성격과 취미와기타여러가지의 서로 알지아니하면 아니될 중요한점을 조금도 알지못하고 다른사람의 의사만을 따라서 결혼하고 백년을 가약하게 되다면 두사람의 결합이 잘될수가 업는일이오 그들이 서로 맛지아니함에 불구하고 형식에 거리껴서 억지로 사라간다면 인생의 불행은 거기에서 더클수가 업는것입니다 가정에 대한일은 물론 사회에대한 일까지라도 부부생활에 관계되는것이 직접간접으로 적지아니한것입니다 그리하야 예전 현인의 말슴에도 군자의도는 부부에게서 비롯는다 하얏읍니다 그러한 혼인중에 요행으로 적당한 결혼이 잇다 할지라도 그것은 례외이고 대부분은 불행하게 되는 것인즉 그것은 혼인의 본의가 아닐뿐 아니라 천리 인도에 어그러지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제도는 개량하지 아니하면 아니될것입니다』

『그리하야 강제결혼이 혼인제도의 폐해가 되는것은 사실이지마는 단순히 그러한 잘못된 혼인제도 까닭에 녀자가 압박을 바게된다면 그것은 론리학적(論理學的)으로 성립이 되지안는 말입니다 웨그러냐하면 만일 혼인제도가 압박을 밧는 원인이 되다면 그원인은 남자에게나 녀자에게나 다가티될터인대 녀자만이 압박을 밧고 남자는 압박을 밧지아니할뿐 아니라 도로혀 압박을 주게되는것은 미루어보면 압박을 밧는 원인이 혼인제도에 잇지아니하고 다른대 잇는것이 확실한 징거가 아니요? 그러한즉 강제결혼 제도의 폐지라는것은 녀자에게나 남자에게를 물론하고 결혼제도의 원칙상 불가하다고 할지언정 그것이 곳 녀자가 남자에게 압박을 밧는 원인이라고 본것은 잘못입니다』

『연애의 자유에 대하야 말슴하겟슴니다 연애의 자유라는 것은 강제결혼제도의 폐지와 조금이라도 다른 의미를 가지는줄로 아는것은 대단한 잘못입니다 연애의 자유라는것은 질적(質的)이오 량적(量的)이 아닙니다 다시말하자면 연애의자유라는것은 누구든지 자기가 사랑할만한 사람을 자유로 가린다는 의미요 여러사람을 마음대로한꺼번에 사랑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남녀를 물론하고 결혼하기전에 서로자기가 사랑할만한 사람을 골나서 서로 보기만할뿐이 아니라 상당한 시일을 두고 교제를 하야서 그사람의 육체와 정신에 대한것을 될수잇는대로 자세히 살펴서 여러가지가 자기의 리상에 합당한뒤에 양편의 동의로 사랑하고 결혼하는것이 이른바연애의 자유입니다 그러면 연애의 자유가 결혼제도에 모순되지 아니할뿐아니라 결혼제도는 반듯이 연애의자유라야 리상적일것입니다 그러한데 연애의자유라는것을 마치 다부주의(多夫主義)나 다처주의(多妻主義)로 해석하는것은 그야말로 옷을 물이라고하고 구름을 진흙이라고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연애의자유라는것을 다부주의로 아라서 그것을 실행한다면 녀자에게 잇서서 그보다 더큰불행은 업슬것입니다』

男子專用

巧妙發明 物理療法器로

弱小生〇器

自己가秘密簡單히 健全發育과 機能復活의大好評

弱小의不幸

男子로나서, 生〇器發育不全機能障害가잇스면, 恐怖的實情이 엇슴으로, 動하는結婚도回避를하면서 父母에게도 말을못한다는苦白을 하는靑年도잇는데, 家庭이和合치못하야 多額의金錢을浪費하면서 여러가지 治療를하야도 效果가업시悲觀하는人도 不少한데 至今最新發明療法의惠澤으로, 人生의 新生涯를開拓하야 運命을好轉할時期가와다

自己가 秘密簡單히, 直接生〇器에 使用하야 物理療法을行하면, 目前에 眞空吸引力을 起하야 性器에新鮮한血液이 流集하고 發育細胞를 新生하는 給源이되야 組織을擴張하고 發育力을 喚起하야 發育的現象이 具體的으로 實現되는同時에 生〇器에 敏感한『엔슈진』作用으로 不自然한 神經衰弱을 復活하고 過房의弊、遺精、夢精、早漏 陰萎、機能障害等을 回復하야 弱小 機能 障害도 些少한 費用으로 健全發育되는 效果가나고 따라서 男子의資格을完成하면 이것을 根本으로 腦力元氣、記憶力을增進하야 前途의 幸福과成功의光明이비치며 人生이 明朗해진다고 實驗界에서는 回復者의 好評과 感激의聲이 交錯하고잇사오니 患者諸氏는 躊躇치말고 곳實驗을……

各博覽會名譽金牌受領

眞空吸引力으로 發育의幸福

日獨佛專賣特許 ホリック 眞空水治水器는 學理應用의 發明構造가精巧를다하고、形도적으나 輕便한데 效力은크다 本器를

▽注意

靑年準備時代는 一日이라도 貴하니、男子一生의 資格을完成함은 準備中第一의急務이다 要는即決實行에잇다

日獨佛專賣特許

醫學博士五十餘氏實驗證明推奬

博覽會名譽金牌受領

ホリック眞空水治器 金五圓 送料 內地二十五錢 植民地五十錢

包莖 자르지안코、秘密히제절로成形됨 登錄商標 ホリック包莖安全器 金四圓 送料 內地一五錢 植民地四二錢

◎代金引換小包는 各送料十五錢增

▽說明書添付▽

僞物 效果不完全한 까짓模造品이잇스니 의商標가잇는ホリック眞空水治器를 求하시고 반듯이ホリック

◇無料進呈 (非賣品) 圖入說明書

造化의秘密性的新知識을 開放的으로 漸載하고、本器의內容까지 詳細히說明하고、特히生〇器弱小男子의 深刻한 悲哀의事實 回復者가 滿悅함에 어든感謝實驗文도 多數히 記載되여잇사오니 곳 一報하시라 秘密은 安心하시고 葉書로 照會하시면 全部匿名으로 送付합니다

東京市芝區神谷町十八 合資會社 東京 新療法研究所 電話芝 七一三三 九二一 振替東京 [illegible]

◎世界一、廉價生産都市인、名古屋製品大宣傳、販賣코ー스大革命! 販賣品을全部自家工場에서製造하야大衆的으로大廉賣함으로써特約店、仲買人、問屋도無用의賣物이올시다 이런革命的大廉價品을꼭 一次利用하시라。

大產=大販=市價의=半額

◎小賣市價의半額以下、絕對責任付、不向返金、品替自由

高級トンビ
本ラクダトンビ 十三圓 生地는本ラクダ本絹朱子總裏付
高級ラクダトンビ 二十三圓
本ロスキントンビ 十八圓 高級品으로 純上ロスキン地로서本絹朱子總裏付、絹綿付、市價三十圓以上의品。어느것든지鯨尺三尺四寸、三尺五寸、三尺六寸同値

スポーテックス地 靑年向背廣洋服 中年向本年流行上等生地色合、紺、黑、茶色이며秋冬春着用됨
中年向 三ツ揃 五百着限大特價 一着 八圓八十錢

鬼三枚底總靴革 鬼三枚短靴 一足 三圓五十錢
北朝鮮人本位로서底는牛皮三枚重中은上等牛革으로最新式流行的靴이요十文半부터十二文까지同價
鬼三枚編上靴 一足 三圓九十錢

サージ洋服 特別品紺、黑サージ地로서仕立入念丈夫 向一般用
詰エリ特品 八圓五十錢
詰エリ上品 六圓五十錢
三ツ揃特品 十六圓
三ツ揃上品 十一圓

靑年訓練總革靴 絕對無比 一足 三圓五十錢 耐久二個年以上
此訓練靴가特히注意한것은 皮底는極厚牛皮에다金鋲數十個를박고前後에는鐵을대엿슴으로軍隊式用靴의가진고製品과同等으로原料의甲部는極上厚牛皮 以上耐久力이잇소

ウーステット地 紳士向背廣洋服 本年流行의紳士用ウステット地最新柄濃色地에杉織、縞柄格子柄等年齡御指定
上品 三ツ揃一着 十五圓五十錢 ●ウーステット地ニアルパカ總裏付
特品 三ツ揃一着 十八圓五十錢 ●特上ウステットニ本絹朱子總裏付

高級紳士禮服用總革靴 高級職工의手製요原料等은모다最良品을特選한것이요十文부터十一文半까지 同價
深型靴 五圓五十錢
ポタン付先細來舶エナメル付 短型靴 四圓五十錢
機上等牛皮底品質保險

最新ピッケ地 紳士向背廣洋服 特選高級品三ツ揃一着 十六圓五十錢 高級中年向으로小ミジン과アゼ柄의優良品이며裏는アルパカ와絹朱子

流行總革フレンチ型 本品은絕對로優秀한手製品이요 使用치는全部上等總皮底
編上靴 レフチン型 四圓二十錢
レフチン型 短靴 三圓七十錢

御注文의便利 御注文은手紙로申込하시오 代金引換으로 ...

製造直販元 合資會社 金城商會・販賣部 名古屋市東區千種町(吉井宿) 電話東 五二一七・二〇四[illegible]

活動의秋！行樂의秋！

消化劑 口香料 四博士責任劑 ポケット必携 仁丹

仁丹持って
인단가지고

時候變할只今 胃腸의保全에

胃腸障害에…秋冷에서생긴

胃腸障害는여러가지惡疫을誘發하기쉬으니

于先、仁丹을連服하야治療力을百％로맨듭시다！

胃腸增健에…仁丹을常用하야

胃腸을根本的으로保强케하면萬病의豫防뿐만아니라

不老長壽의健康을獲得한다！

此際…全國一人도빼지안코

乙女ケース進呈
(처녀케쓰)

ローズ仁丹十錢包에添贈
(로즈)

野へ山へ
들로 산으로

群衆雜踏한곳에…

船車、旅行時에…

特히仁丹을꼭지니라

이런때에는

꼿仁丹을

惡疫流行할時
설사、腹痛날時
不消化、中毒될時
惡心、嘔吐날時
疲勞할時
倦怠、憂鬱할時
頭痛眩暈날時

仁丹齒磨と仁丹麗泉本舖 大阪市 森下博營業所

職場을封鎖當코 數百勞働者恐慌

—將次重大事態惹起憂慮—

大元金鑛의紛糾餘波

【新義州】 이개월동안이나 분쟁에 분쟁을 거듭하고 아직까지도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고잇는 평북의주군가산면방산동(義州郡加山面方山洞) 대원금광(大元金鑛)은 이즈음 또다시 새로운 범죄수속을 당케되여 동업자간에 일대 센세이슌을 니르킬뿐아니라 직접 이광산에 종사하는 이백여종업원에게 영향이 파급케되야 큰문제를 니르키엇다 즉 이광산은그 광업권을 둘러싸고 현재채굴자인 김홍봉(金弘鳳)과 김석필(金錫弼)사이에 소송이 니러나 이 번원부터 신의주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일편 피차 형사고소를 제기하야 모다 무지장노릉까지 생기엇고 김홍봉편이 신의주지방법원에서 득승한 후는 광산채굴을 계속하면서 평양복심법원공소에 응소하여오든중 김석필은 동광산에 대하야 채권집행의 목적으로 평양지방법원에 신청하야 지난 십륙일 광산 제일구 십팔개소에 채굴정지의 가처분(假處分)을 하고 또 그위 채굴한광석 수백포대를 차압하얏다 이와가티되여 이광산에서 종사하는 이백명가량의 광부는 엄동이 갓가운 이때에 돌연 직장의 봉쇄를 당하고 크게 분개하며 장차 불온한 행동에까지 나아가려는 긔미가 잇스므로 목하 의주경찰서에서는 만일을 경게하는일방 김홍봉에게 대하야 급속히 사건을 해결하도록 권고를 하는중이라고 한다

秋收로奔忙한此際 砂利採取의賦役

當局의沒理解를非難

【尙州】 백곡이 결실하야 방금 추수의 방붐과 보리갈기의 이때에 도로의 사리(砂利)를 채취하라는 명령이 당국으로부터 나리엿다 전국 사리는 밤마한(栗大)것으로 매호에 석유궤로 사십한궤반식이라는데 도로면에 깔게되면 듯헤가 세치가 되여야한다는 것으로 사리를 선로변에 깔게되면 보행(步行)과 자전차(自轉車)등은 여간 곤난이 아니며 때가 밧부지나 아니하면 모르되 농가의 고통은 여간 심한바가 아니라고 한다

生活難을悲觀 中國人縊首自殺

【仁川】 지난십칠일 오후사시경 시외장의리(長意里)공동묘지근방에서 그이웃에사는 중국인우모(禹某)가 나무에 목을매여 죽어잇는데 원인은 자세치안으나 생활난인듯하다한다

佛像窃取한者 六個月役言渡

【江陵】 강릉군 보현사(普賢寺)의 불상은 영험칠성(七星)의 불상이라고하야 강릉군내 불교신도들의 신앙의 대상이 되여잇든바이 불상은 어떠자가 절취하야 간긔괴한 사실이 판명되어 경찰당국은 극비밀리에 그불상의 거처를극력 내사하든중 수일전 강릉읍룡강정(龍岡町)에 거주하는리성주(李聖注)를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하야 이래엄중히 조사를 하고잇든중 드듸어 그가 범행을 일일이 자백하얏슴으로 일건서류와함께 강릉검사국에송치되엇든바 검사국에서도 유죄로 결정하고 긔소하야 지난십륙일 그에대한 공판이 동법원지청에서 개정되엇는데 결국징역륙개월을 언도하얏다한다

新面長決定에不平 面議、區長總辭職

九千餘面民을無視함이라고 咸安山仁面의大波瀾

【咸安】 경남함안군에서는 지난달이십륙일 동군산인면장 (山仁面長) 조모(趙某)의 사퇴에 의하야 후임으로 동군칠서면 (漆西面) 에서 회게서긔로 잇든 심상련(沈相鍊)씨에게 사령을 교부하야 즉일부임케 하는동시에 사무을 집행케 하엿든바 이에 전면민은 면장사퇴후 불과 이삼일간에 신임면장이 부임하게 된은 오로지 전면민을 무시한 군당국의 처사가 경솔하며, 의심스럽다는 물의가 비등하여오드니 지난십이일 돌연히 면협의원 리병안(李秉鞍)외 구씨와 구장리병한(李秉翰)외 여섯명이 결속하여 총사직을 단행하엿다 이에 산인면(山仁面) 치정사상(治政史上)에 중대 파란극이연출되며 일반은 사태의 진전을 매우 주목하고 잇스며 각관계자들은 다음과가티 말한다

◇面協議員 某氏談

우리는 어떤 인물이든지 자격자라면 절대환영합니다 신임면장 배척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면내에서도 자격자가 업는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당국에서는 전임면장 사직후로 타면사람을 쓰게 되는것은 너무나 산인면민전체를 무시하지안습니가 그런당국자의 지배하에 면협의원의요직을 감내 하여나갈수업슴으로 사표를 연명으로제출하엿슴니다 운운

區長 尹正學氏談

오직 군당국의 태도가 경솔합니다 우리면에도 면장자격자가만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면장사퇴직후로 타면사람을 물색하여 부임시킨은 전혀 자그들의 십분친지들만를 요직에 처케하라고 산인면인구 구천여명을무시하지안습니가 우리는 끗까지 버티어볼것이외다 운운

責任當局 沈相鍊氏談

신임초에 이러한일을당하여 사회의여론이생기게된것은 미안하외다 사직서는 바닷슴니다만 아직수리할수업는 처지임으로 호별방문을 어제시부터하여 조정에 애를쓰는중입니다 아마 이번문제는 자신의인책문제 여하에서 해결될것이지요 운운

江陵邑의人口는 江原道內의首位

九個月間近二千名增

【江陵】 금년십월일일 현재세조사의결과 강릉군내의 인구동태를 조사한바에 의하면 군전체의 호수는 일만구천백구십팔호에 남(男)오만이천구백팔십삼인녀(女)오만일천사백십삼인 도합십만사천이백구십륙인인바 이것을 구개월전인 소화구년말 현재에비하면 호수에잇서서 일천칠백구십이호, 인구에잇서 칠천사백팔십명의 증가를 뵈이고잇는데 이증가된리유는 강릉읍과 주문진항의 발전과 옥계면(玉溪面)의 광업등으로 말미암음인 것이라는데 이제 강릉읍내의인구동태를 겸하야 볼것가트면 삼천삼백륙십오호에 인구일만륙천구백팔십일인데 이것을 작년말에 비하면 근구개월간에 호수로 이백구십사호 인구에잇서서 일천이백칠십이명의 증가를 뵈이고 잇는바 이수자는 과연강원도소재지인 춘천(春川)을 칠신동가하고잇서서 사실상 강릉은 강원도에왕좌적지위를 점령하고잇슴을 수자가 확실히 증명하고잇다

阿片密造密賣 中國人夫婦檢擧

【仁川】 아편밀조밀매한중국인부부 시내지나정(支那町)일번지중국인장두괴(張斗魁)그처주씨(朱氏)등을체포하야 엄중취조중이라는대 그들은 동번지내에 소굴을정하고 시내아편중독자들에게 마약을밀매하고 잇스나 마약의출처가 미상하야밀수밀조한혐의로 방금엄중 취조중이라한다

惡毒한繼母! 前妻子를謀殺

【淸州】 괘괘묵은 고대소설에서나 차저볼수 잇는 악독무쌍한 현대의 계모가 한분 또청주에 남어잇스니 그는 청주군사주면 신봉리 남모 (四州面新鳳里 南某)의 후처 김모(金某)로서 전처 소생인 당년이세의 어린이를 살해하라고 지난십일일에 양재ㅅ물을 란편귀에 주입시긴것이 발각되여 아이는 도립의원에서 가료중인데 전치이주일을 요한다하며 범행자는 방금당지 경찰서에 피체엄조중이라고한다

馬山第二普校 新築工事着手

【馬山】 오래동안 마산부민의판심사이던 제이 보통학교는 그동안 재반난관을 거듭하야 이

家庭婦女欺瞞한 女流詐欺群逮捕

仁川署에서嚴調中

【仁川】 근일인천시내에는 세찬계를모은다하고 무허가계로 가정부녀들의 금전을 사취하다는 고소장이 답지하는형편이라 그리면을 엄중조사하든중 얼마전에 률목리(栗木里)로부터 김모(金某)라는녀자를 인치하고 엄중조사하든중 이삼일전에 또한 오대근(吳大根)을 인치하고 엄중취조중이라는데 피해액도거액에달하리라하야 가장주목되는바이며 취조에딸아 여하히 전개될지 가장주목처이라한다

望祥公立普校 年內開校豫定 設置認可된

【江陵】 강릉군망상면(望祥面)은 지극히 경제적으로 가난한면이나 그러나 면민들의 교육열은 치열하야 현재사립망상학교 (私立望祥學校)는 강원도내에 잇서서 그의과정적비난을사는 현혀하거니와 닥처오는 경제적핍박은 막심하야 이것을공립학교로 승격시겨 교육긔관으로서 영원히존지코저 현면장 한창우(韓昌悉)씨는 면민늘촉진하야 그귀본금 근사천여원을 삼년이라세월안으로개교하려고노력중이라한다

社告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支局을設置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白

興水支局 位置 京義線興水驛前 支局長 梁潤華

杆城支局 位置 高城郡杆城邑 支局長 安鍾燦

社告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分局을設置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白

龍臺分局 位置 咸鏡線龍臺驛前 分局長 尹夏運

謹告

大川分局 記者兼集金員 崔[illegible]

右解任

[illegible]分局 記者 高[illegible]

右依願解任

一山支局 記者 金[illegible]

右新任

尙州支局 化寧分局長 洪致中 中牟分局長 李[illegible]

右新任

淸道支局 記者 金德明

右解任

金海支局 集金員 全在順

右新任

記者兼集金員 金德龍

右解任

杆城支局 巨津分局長 韓泰魯

右新任

陽德支局 集金員 吳道秀

右依願解任

豊川支局 集金員 鄭元熙

右新任

新義州支局 記者 金明奎

右新任

記者 林[illegible]玉 記者 白元[illegible]

右依願解任

寧邊支局 [illegible]分局記者 [illegible]士能 記者兼集金員 白正[illegible]

右依願解任

[illegible]興支局 記者兼集金員 李東[illegible] 記者 尹中杰

右新任

李天支局 分局長 [illegible]文明

右新任

異次頓의死 【18】

李光洙 作 金奎澤 畵

집에는 아버지 이마로이손이 걱정하는 얼골로 부인과 함께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잇섯다。

「인제 오느냐?」

하고 부인은 딸이 아버지에게 걱정될것이 가엽서서 잠깐 동안이라도 위로하랴으로 달님이 올라오는 마루끗에 마조 나가며,

「그래 오늘 길사은 언느 편이 이겻느냐」

하고 물엇다。

「공주님 편이 이겻습니다」

「그럼 네가 회소를 불럿겟고나。작히나 잘 불럿슬라고」

「공주님께서 이몸을 지극히사랑하시다가 지금은 지극히 미워하시기로 우리 편에서 상은상을 덜가지고 갓습니다。 공주님이 이기섯기에망정이지 지시고 회소를 부르시게 되섯더면 —그러치안아도 가끔 무서운눈으로 이몸을 노려보시던데 그럴때마다 몸에 소름이 끼치곤」

하고 달님은 한숨을 쉬다。

「아버님께서 널보고 하실 말슴이 계시다고 기다리시니 들어가서 뵈어라」

하고 부인은 가슴에 가엽슨생각이 짝차서 딸의 등에느린상사단가튼 머리채를 두어번 쓴다。

달님은 아버지의 걱정이 무엇인지를 짐작하면서 방으로들어가서 외면무릎을 꿀고 울흔팔을 땅에집허 아버지께절하고

「아버님, 인제 대궐에서 나왓습니다」

하고 한편에 울하고 섯다。

이마로이손은 신궁에 갈때에 입엇던 자주 전복을 입은채로 자주관을 쓴채로 안저잇섯다。 아버지가 아직도 벗지아니한 것이 더욱 달님의 마음을 괴롭게하엿다。

「너는 아까 신궁에서 어드를 갓섯느냐」

하는 아버지의 어성은 서리가 탓다。

「검산에 올라갓섯습니다」

하고 달님은 고개를 숙엿다。

「누구허고?」

「이차돈서방님께서 잠깐 할말슴이 잇다고 해서 뵘님을 다리고 셋이 갓섯습니다。」

「그래 무슨 말을 하엿느냐」

「이차돈서방님은 이 몸을 바릴수가 업노라고、내일 아침상감마마께 엿줍겟노라고——」

「너는 이차돈이 평양공주마마 부마가 되고 또 태자가 된다는 말을 못 들엇느냐」

「들엇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서 네가 이차돈을 따라 검산에를올라갓서?」

「이차돈서방님께서 가자고 하시옵기로」

「아모리 이차돈이 가자고 하더라도 못합니다、하고 웨 준절하게 거절을 못하엿느냐 말이다。」

「잠깐 하실 말슴이 잇다고 하시기로。」

「그 할 말이 무슨 말이올 생각하엿노?」

「아마 나는 평양공주님 부마가 되고 태자가 되겟스니 너를 안해로 삼을수는 업다——」

「그래 무에라고 하더냐」

달님은 잠깐 말이 막혀섯다가、 아버지의

「바로 말해보아라」

하는 재촉을 밧고、

「부마도 실코 임금되는것도 실타고」

「무어?」

하고 이마로는 놀라는 빗을 보인다。

「부마도 원치안코 임금되는것도 원치안코——」

하고 달님은 그이상 말을 못한다。

「그래。너는 이차돈보고 무에라고 하엿서?」

「안 되십니다고、나라에서 하시는 일을 거역하면 불충이 아니냐고」

「올치、그러치、그러니까 이차돈은 무에라드냐?」

「대장부가 한번 한 언약을 죽기로서니 어긔겟느냐고。」

이마로는 말업시 고개를 끄덕 끄덕하더니、

「그래서 너는 무어이라고 햇서?」

하고 달님을 노려본다。

「그러치만 서방님께서는 장차 임금이 되시어서 한 나라를 다시리실 어룬이니 그런 조고마한 언약을 생각하시지말라고」

「올흔 말이지。그러니까?」

「그래도 대장부가 언약을 지켜서 죽는것은 쾌한일이라고、내일 아침에는 상감께 그런 절차로 엿줍는다고。」

尙州 金剛山探勝團募集

▲日時 十月二十二日出發(七日間)
▲會費 二十六圓也(十圓申込時先納)
◇主催 朝鮮日報社尙州支局
◇後援 尙州驛

蔚山 石南寺觀楓大會

▲日時 十月二十七日(自動車往復午前十時出發午後六時歸着)
◇會費 金一圓五十錢
◇主催 朝鮮日報社蔚山支局

郭山 全定州少年競技運動

▲日時 十月二十七日(午前九時)
▲場所 郭山公立普通學校運動場
◇主催 朝鮮少年軍第六十五虎隊郭山分隊
◇後援 郭山體育會 朝鮮日報社支局

進永 伽倻山探勝團募集

▲時日 十月廿三日發 同廿四日歸着
▲會費 一人當五圓(車費食費其他一切)
◇主催 朝鮮日報社進永支局

進永 全朝鮮弓術大會

▲時日 十月二十六日(陰九月廿九日)
▲場所 進永錬臂亭射場
◇主催 進永錬臂亭弓術大會
◇後援 朝鮮日報社進永支局

洪城 全朝鮮自轉車競技大會

▲時日 十一月三日午前九時
▲場所 洪城工校前廣場
◇主催 洪城朝陽學院
◇後援 朝鮮日報洪城支局

리베-루 リベール 우수한 치림약

빠른效力 安全療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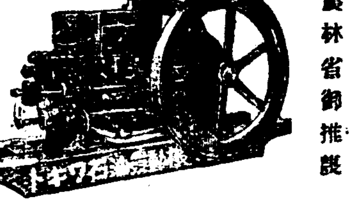
日本內地海外各國에서 好評嘖嘖 輸出十五個國에達한다。 腸粘膜으로의吸收는 極히迅速하야 服藥五六時間後小便은 藍色으로變하고 强한리베-루臭를내고 排泄하며 尿道의淋菌은放尿와가티殺菌驅排한다。 그럼으로고름이 除去되고 痛症이爽快히消散되다 이服藥前과 服藥後의尿를다보와서專門醫에付托하야 顯微鏡으로 보게하면 黴菌殺滅狀態가分明히 보인다。 自家尿道洗滌及局所療法等은大端危險하야 可恐할睾丸炎에걸리게 될 우려가잇스니注意하시라。 單白檀油球와밤사球等은數日의連用으로도빨리習慣性이되야 그後로는얼마를먹어도 白色膿은끈치지안는다 리베-루의 優秀價値는여기에잇다。 時機를勿失하고 他藥에迷惑지마시고로저藥局에리베-루의一箱을꼭指名하야求하시라。 品切時는本舖에直接注文하시라(送料無要)

藥價 五日分二圓、七日分三圓 卅日分五圓、廿七日分十圓

大阪市南久太郎町 本舖 竹村製劑所 振替大阪三六〇

到處藥房에잇습

發動機界最高權威



農林省御推奬

取扱發動機種類 (永久히安心的保用證 良機實任絶對保證)
1、도기와式 2、카루다式 3、긴구式 4、구스도式 5、마스다式 6、야시마式 7、其他各種類

書面照會卽時 目錄無料贈呈

大阪府大和町 代理店 濱田農機店 (電話七四六番)

自轉車用 グレート印 스프링사도루

類似粗惡品이잇스니商標에注意

輕快 堅牢

全國自轉車店에잇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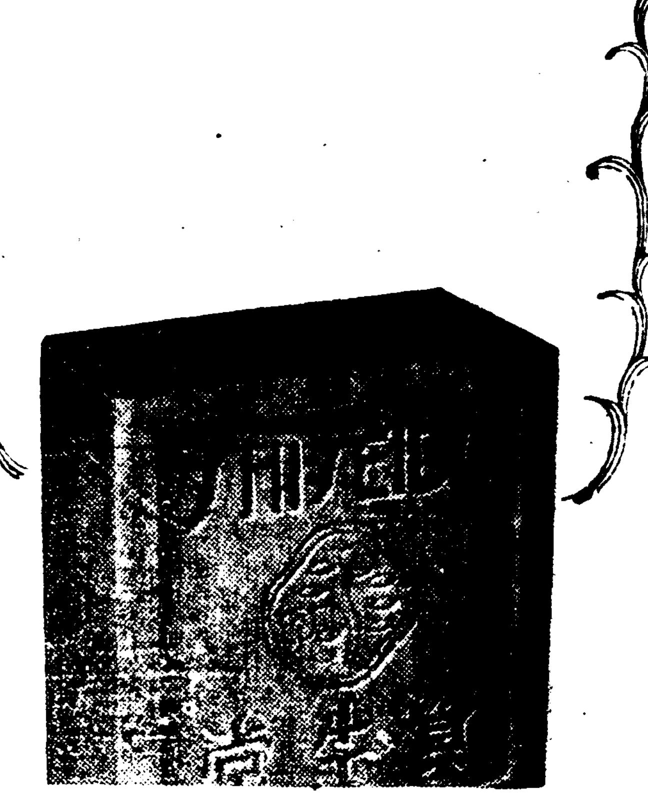
神戶 山本サドル株式會社

●天下의料理業諸位여! 惡醉한손님에게 ノーシン(노-신)을●

資生堂洗濯石鹼

衣服바탕을안버리고 잘빨닌다!

本品의特長
一、最高의品質 最低의價格
一、거품이 잘나오고
一、洗濯한뒤에 不快한내음안남기고 쓰기조타
一、淨白力强하고 經濟的이다



東京銀座 資生堂

味の素 (아지노모도) (登錄商標)

小冊子「四季朝鮮料理法」 定價五錢 送料二錢

京城府南大門通三丁目 鈴木商店朝鮮事務所

李王家御用達 味の素本舖 株式會社 鈴木商店

10—イ

當選謝禮 四平街地方委員 金亨龍

當選謝禮 慶北道會議員 全河暻 (榮州)

伊太利經濟吟味

④…財政膨脹으로增稅

歲入方面에서 前述과 가티 모든 手段을 써서 增加를 하엿스나 奏功지못하고 歲入은 늘것이 업섯다 그러면 歲出은 어떠한가 이것은 歲入以上의 無制限 膨脹을 나타내엿는바 最近의 歲出內容을 보면 다음과갓다

(以下單位百萬리라)

	一九三三—四	一九三四—五	平均
國債利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年金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經濟補助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般行政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財務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司法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國防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道路建設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公共事業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經濟施設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敎育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殖民地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社會事業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宗敎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在外公館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警察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總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卽經濟不況中에 歲出의增加한 原因을 나눠서보면 다음과가튼 四要素로 되다 (一) 各種補助金及公共事業費 (二) 臨時財務費 (三) 地方財政補充費 (四) 軍事費

×

(一) 補助金及公共事業費‖旣述한과 가티 여러가지의失業救濟事業은 一般行政費와 鐵道補助費等의費目을 顯著히膨脹케하엿고 職業의名目中에도 鐵道建設其他의費用이 包含되야 經濟施設費中에는 船舶補助金이들엇는바 그經濟施設費의太半은公共事業省의費用이다

(二) 臨時財務費‖伊太利政府는 여러가지의 公債借換操作을 하야 國債費의 輕減을 圖하엿다 그 結果 財務費가 一時的으로 매우 膨脹한바 卽 一九三三年度에 三億五十八百萬리라가 이로因하야 늘엇스며 또 一九三四年二月의 五分利附 公債의三分半으로 借換에 對하야도 卅億리라를 要하고잇다

(三) 地方財政補充費‖地方財政補助費가 中央의 負擔으로되기 始作한것은 一九二九年부터이다 一九三〇—一九三一年度에 三億五千萬리라、一九三二—一九三三年度에 七億리라를 이費目으로 支出하엿다 이負擔은 敎育費、一般行政費等中에도 包含되엇다

(四) 軍事費‖이것은 一九三〇—一九三二年度에 一億하야 六億三千萬리라가 늘엇다 이번의伊에 紛爭이 勃發하야 아서軍事費가 加速度的 增加를하기시작하고 今年四月까지 東阿遠征費는 六億 二千萬리라에 達하고 今年七月一日에 三億七千萬리라를 셋다

×

歲出의增加와 歲入減少의結果는 財政不均衡이다 그當然한結果는 國債의 累積이다 伊太利國債의 特徵은 外國債가 적은것이며 國債以外의 政府의對外負債總額은 一九二五年 七分利 美貨公債 現在額八千二百萬弗과 一八六一年五分利英貨債百三十萬磅에 不過하고 다만 그밧게 三公共團體의 債務千六百五十萬弗과 百萬磅의 支拂을 引受하엿다 그러나 伊太利가 受取할 賠償金은 그보다도 만코 그 當年 現在戰債가 卅五億七千二百萬弗 賠償金이四十億五千七百萬弗이다 現在伊太利는 賠償金을 받은것이 업고 후버-모라토리움以來 英國에 對하야 戰債를 支拂치 안엇다 一九三三年 十二月以來 米國에 對한 戰債도 支拂을 停止하고 잇스므로 實際의 負擔으로 안되엇다

×

問題는 內國債이다 內國債는 一九三〇年의 八百八十億리라에서 一九三五年 一月末에는 一千五百億리라로 五年間에 百七十億리라의 大膨脹을 하엿다 그러나 實際의 債務는 相當히 만타 最近에 코노미스트誌의 槪算에 依하면 다음과 가티 公表債務보다 五割이 더 만흘것이다

(以下單位百萬리라)

一、內國債 [illegible]
二、大藏省證券 [illegible]
三、伊太利銀行貸出金 [illegible]
四、其他公債 [illegible]
五、其他諸債務 [illegible]
六、未收入에 對한未拂金의超過 [illegible]
七、自治團體債務 [illegible]
八、擔保債務現在額 [illegible]
計 [illegible]

以上의數字中 最後의項目은 公債以外의 費目으로는 最大하고 또 가장 不確定한것이다 이項目을 利用하야 政府는 歲出을 하고잇는바 이와 同한 財政狀態로서 다시 東阿遠征費의 負擔을 하게되엇다 이곳에서 一步를 잘못하거나 또는 잘못치 안튼데도 伊에紛爭이 오래동안 걸리면 財政의 破局은 免치못할것이다 이에 對하야 組合國家가 어는地境까지 堪耐할수잇슬는지 問題이다

×

國際聯盟은 總會에잇서 經濟制裁의裁判을 내리고 各委員會는 順次的으로 制裁의具體的方策을 決定하고잇다 이미 財政制裁委員會는 金融封鎖를 決議하엿다 이것은 이미 七月以來 實行하고잇슴을 法的으로 確認하엿슴에 不過하다 그러나 制裁는 武器輸出禁止、或은 全般的通商斷交로 나아가고잇다 쓰에스運河의 封鎖問題도 반듯이 實現不可能이라고 말할수 업는만큼 英國은 强硬한態度이다 勿論 伊의經濟的制裁에 依하야 곳 伊太利가 物資의不足으로 困難은 업슬것이다 그러나 相當한 打擊은 免치못할것이다 不況이 深刻하든 伊太利經濟가 이것을 堪耐할는지 이것은 伊에紛爭의 最後로 外交的成否에 달렷다 伊太利貿易의 相對國別比率을 揭載하면 다음과가티 獨逸과의關係가 漸次 緊密해진 點이 注目된다

(以下一九三三年度)

輸入	
米國에서	一五.〇%
英國	九.八
獨逸	一四.六
瑞西	三.六
波蘭	〇.八
和蘭	一.六
佛國	五.五
白耳義及룩셈불크	三.一
其他	四六.〇

輸出	
米國向	八.七
英國	一一.四
獨逸	一三.二
瑞西	八.〇
波蘭	一.二
和蘭	二.六
佛國	七.七
白耳義及룩셈불크	二.四
其他	四五.八

(終)

正租檢査實施後의各地實情

各港에 玄米만 廻着

僻地小精米所增加

正租出廻는顯著히減退狀態

仲商은細農弱點利用

新米의 出廻는 十月一日의正租檢査實施前에는 相當히 잇섯스나 十月一日以後 正租의 海港地廻着은 突然停頓하야不圓滑한 廻着狀態를 示하는데 이結果 海港地의 正租精米工場은 原料難에 빠저잇는 同時에 僻地에 移動式의 簡單한 正租精米工場이 나타나는 奇現象을 나타내이는 터이며 海港地에는 玄米만 廻着하는 狀態이다 그러고 一面으로 正租檢査實施의結果 細農中에는 하로라도 빨리 正租를 現金으로 바꾸어야될 處地에 잇는사람이 만흔만큼 未檢査正租를 仲間商人에게 比較的廉價로 販賣하는傾向이 不少하며 따라서 仲商들은 그와가튼 細農의 弱點을 타서 跋扈하는關係上 各地에 弊害가 만흔 혼란이라고한다

檢査實情調査

穀聯에서對策講究

◇昨報‖朝鮮穀物協會 聯合會의 幹事會는 十八日午前十時부터午後三時까지 京城俱樂部에서 開催한結果

(一) 玄白米의 含水料低下件은 多少 全朝鮮的實情에 맞지안는點이 잇서 議論이 만허 結局決議는 保留하고 硏究키로하엿다

(二) 自治管理案對策의 件은 自治管理案이 決定되고 議會에 提出키로決定하면 朝鮮獨自의 立場에서 그利害를 檢討하야 方針을 決定하고 全

朝鮮一致의 步調를取키로協議하고對策決議는昨報와가티保留

(三) 朝鮮米會解散‖齋藤理事長에서 經過報告、來年解氷期를 기다려 着手하라고 準備를 整頓키로 決定하엿다

그러고 議案外로 十月一日부터 實施된 正租檢査의 正租廻着狀態에 줄影響에對하야 十一月中旬까지 各協會에서 各各實情을 調査硏究하고 그調査를 가지고서 米豆査定會議前에 幹事會를 열고 對策을 講究키로 決定하엿다고한다

中旬對外貿易

出超千八百九萬圓

【東京電話聯合】大藏省發表에依하면 十月中旬 對外貿易槪算調査는 다음과갓다(以下單位千圓)

輸出 六五、五五五
輸入 四七、四六〇
合計 一一三、〇一五
出超 一八、〇九五

今年春蠶

飼育戶數

八十二萬千戶

【十九日農林局發表】昭和十年의 春蠶飼育戶數는 八十二萬一千五

全南北旱害

救濟金計上

◇…七十四萬千圓

總督府農林局에서는 全南北二道의 旱魃에對하야 調査及對策을 講究中이든바 今般 旱魃救濟金 七十四萬一千圓을 計上하야 各共代用作의種子正租 種子麥購入補助 業獎勵費 堤堰浚渫 新規工事費(主로土木工事費)로 兩道에 支給하기로決定되엇다한다

米國金銀輸入高

商務省調查數字

【華盛頓十八日發電通】米國商務省調査에 依하면 今週 金、銀輸入高는 다음과갓다고

▲金 三八、六〇三、五一一弗 ▲銀 五、〇九二、〇二九弗

朝銀券大增發!

米價高와 不動産의 高騰이 原因

年末接近이면 一層增發?

十八日總額의 朝鮮銀行券發行高는 一億五千五百五十四萬圓으로 九月二十五日 五千萬圓臺가 된 대로 繼續하나 膨脹한바 이것을 前年同期에 比하면 二千萬圓餘의 大增發이다 卽昨年에 一億五千萬圓으로 되것은 十一月二十日로、今年은 增加가二十五日이 빨럿다 이것은 米價高 不動産 高等으로因한 것이며 今後 米設資金의 出廻關係上 年末에接近을 따허서 一層增發케될것으로 觀測한다

水利組合內

地價急暴騰

—比前年十割高—

水組愛徹收賦課로 一般不良水組地帶內의 地價는 昭和五、六年以來顯著히 低下되어 米價高와 比하야 割低이엇스나 本年度의 旱害에依하야 水組의 效果가 一般으로 確認되엇음으로 天水畓에 比하야 水組內地價는 急激히 昻騰되어 前年比 十割高를 示한狀

豫算査定

再次大藏省議

歲出에서歲入에

【東京電話聯合】大藏省에서는明年度 各省要求豫算에 對한 主計局의 査定局議가 各省歲出豫算에 亘하야 査定을 終了하얏슴으로 明年度歲入豫算의 計算을 開始키에 至한結果 十八日午後二時부터 藏相官邸에서 第二回 豫算省議를 開會하고 高橋藏相以下 津島次官、賀屋主計局長、靑木理財局長、荒井局長이出席하야 約三時間에 亘하야 協議하고 同五時에 散會하엿는바

同日의 會議에서는 먼저 賀屋主計局長으로부터 明年度 各省新規要求額은 明年度 新規國債와 預金部資金을 除하고도 總額 十一億 二千萬圓程度에 達하고 이것을 明年度 基準豫算十六億入千萬圓에 加算하면 合計二十入億圓에 達하는 計算인데 歲入豫算이 自然增收를 七千萬圓內外로보면 租稅、官業收入等도 만키를 期待할수업는現狀임으로써 大藏當局의 根本方針인 公債漸減主義를 貫徹하기爲하야서도 歲出의 査定을 嚴重히 하지안흘수 업고 從하야 十一億圓의 新規要求額을 五億圓內外로 査定한方針에 就하야 諒解를 求하고 歲入缺陷補塡策과 新規財源捻出方法에 對하야 藏相의 指示를 求하얏다

이에對하야 高橋藏相은 特히意見을 開陳치 안헛스나 大藏當局의 豫算編成 方針을 實現키爲하야서는 全閣僚의 協力을要請함이 必要하다하야 來二十一日 定例閣議席上 高橋藏相으로부터 各省要求豫算의 內容을 說明하고 同時에 從來의 慣例를깨트려 全閣僚에 對하야 各省豫算槪算書의 說明書를 配布하고 明年度各省豫算全般에 亘하야 通曉케하고저 努力키로되엇다한다

經濟界消息

○朝鮮火災社屋新築披露‖旣報함과가티 朝鮮火災는 太平通一丁目新舍屋落成에對하야 十九日正午로부터 同午後二時半까지 各方面人士를 招待하야 披露宴을 베풀엇다고

○朝鮮運送業績‖朝鮮運送會社의 今期業績은 各種工業의振興과 一般財界의好況으로 創立以來 好成績을 나타내여 決算한結果 約七萬圓의 諸償却을 한뒤 二十七萬圓의 純利益을 暴하고 前年同期에比하야 三萬圓의增益이엇다 그리고 廿六日 重役會를열고 決算과 總會附議事項을 決定할터이다

○朝鐵後任重役‖朝鮮鐵道에서는 監査役田淵勳(東拓代表)、取締役松田貞次(三菱製鐵代表)、同山本繁松의三重役辭任에伴하는 後任選擧를 卄一日 總會에서

▲十一月一日朝鮮도休日‖十一月一日은 日本內地의 諸官廳과 銀行會社가 休暇케되야 朝鮮에서도 當日은 全官廳銀行會社도休暇키로되엇다고

砂糖追加供給

十年度數量決定

【東京電話聯合】糖業聯合會에서는 十八日協議會를 열고 昭和十年度砂糖追加供給에 關하야 十月末現在의 需給實情을 調査한뒤 適當한 數量의 追加供給을 하기로 決定하엿는데 이것을最近和關銀行의 利下其他에 依하야 統制를持續한것을 누르리라는것이라고한다

▲回顧商工座談會‖朝鮮商工座談會는 十九日 午前九時四十分부터 京城商工會議所 第一會議室에서 開催한바 官廳側으로부터 殖產局長 安井專賣局長 大內東拓理事長等 十一名이 臨席하고 全朝鮮各會議所의 推薦에 依한 實業家 三十二名 主催者側 三十四名 合計七十六名이 出席하얏다 (寫眞은 座談會場)

百七十三斤로 이것을 前年에 比하면 一萬八千二百四十一斤(二分二厘)가 減少하엿는데 蠶種掃立枚數는 六十二萬八千六百二十五枚로 이것을 前年에比하면 五萬一千三百七十五枚(七分五厘)의 減少이며 產繭額에는 一千四百六十九萬六千九百十八斤으로 前年에 比하야 百十八萬六千三百八十六斤(七分五厘)의 減少이다

今日財界 (十九日)

◆米 (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illegible]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illegible]
正租(仁川)上	[illegible]	[illegible]

◆市中金銀價

◆株 (單位錢)

朝新 東新 日產

◆商品 (先限單位錢)

大阪綿絲 大阪棉花 大阪人絹 大阪砂糖 ゴム現

商況 (十九日)

株式

三國會談 反落

前場低落 英佛伊三國會談開始로 和協이되것도가틀으로 買物이만어 休日을압두고 今前場은 一齊反落이엇스니 即 昨前引에 比하야 東新一圓四十錢低인 六十三圓八十錢、大新一圓三十錢低인 九十八圓八十錢、日產四十錢低인 八十三圓三十錢、總取七十一圓十錢、朝新三十三圓五十錢 日鑛五十六圓七十錢에 各大引되고 鐘新百三十五圓丁 帝人百四十二圓三十錢、安取七圓九十錢、商船新十六圓五十錢各一本이잇고 拓新은 十六圓丁과 十六圓二十錢間高値保合이엇다

前場休會 後場은 例休인데 大阪短期氣配가 區區小動이 엇슴으로 當地氣配는 大體不變이엇다

和協工作再開

戾賣物로反落

英伊衝突은 確報가업고 十八日突然巴黎에서英佛伊三國會談이開始되어和協氣運이再擡頭되고英伊對立緩和工作이 시작됨을따라 昨日英伊衝突說로 暴騰되엇든市勢가戾賣物로 反落되엇다。 그리하야 東京東新은 昨後場의 新高價百六十六圓 二十錢에서 三圓七十錢押인 百六十二圓五十錢에까지 떠러젓스며 當地는 東新百六十三圓十錢 大新九十八圓八十錢、日產八十三圓三十錢 朝新三十三圓十錢에 一齊低落이엇다。

大勢悲觀不要

戰爭終熄이래도

三國會談으로 歐洲가 平穩해진다는前提下에 株界는 어떠케될것인가를 살펴보자—

一、伊에戰爭이 終熄된다드래도 世界的 軍備는 必至的일것이니 世界的軍備의擴張이 봄맛을 期待할수잇다

一、國內的으로는 財界의 好調란 生絲高와米高로 農村方面의 購買力增進 貿易의 好轉 金融大勢無變化이다 그런즉 和協工作이 奏效된다면 歐洲大戰後退으로 買하기 反動이 또 어떤 程度까지 잇슬지모르나 株界大勢로서는 決코 悲觀할것이 업슬뿐아니라 떠러지거던 그는絶好의 買場이 되리라는 말이잇다。

市場六感

株

英伊衝突說로新高價에 暴騰되더니 英佛伊三國會談開始로 和協氣運이 動한다하야 反動▲歐洲大戰이나 伊에戰終熄이나 갈팡질팡 外電一本으로 왓다갓다▲和協된다 해도 世界的軍擴、世界 物價高 貿易好轉、國內인푸레、重要商品高 金融緩慢等 모든點으로 보아 株界大勢는 悲觀不要▲和協이 안되고 英伊가 開戰만된다면 想像도못할爆發◆자—그러니和協을 바라고 팔기보다는 形勢注視가올코 形勢注視보다도

米

昨今의 各地市勢는 마치 가을망둥이 뛰듯 俄然 變敵의 步調로 時日을 費할뿐▲그步幅은 겨우 一、二十丁이니참 아리 時機를 기다리기만 不如▲實로 今回의 拂下는 弱材? 强材? 그成績如何가 注目處▲그러고 第二回米作豫想은 日本內地米는 五千八百萬石乃至 九百萬石說 朝鮮米는 一千八百餘萬石說이 濃厚▲이모든 疑問의材料가 차차알게될 에딸아 市勢가 左右할모양? 그

大局的買方針이 得當하는 某强氣의 말을 그대로 傳하고 우선今後形勢나 觀望하자!

期米

買氣滋生 漸騰

前場跳返 昨後場 阪地三十圓三十三錢止와共히 二十八圓十五錢에 場을止한當市場은 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 三十圓五十錢인 十八丁高를 樺하고 二十八圓二十九錢인 十四丁高로 場을始한後 阪地三節四十錢인 十一丁反落을 擬하고 十八錢까지反落하더니 結局 阪地三十六錢으로 下押함에도 感應이 엇시 二十錢의五番同價를 維持하다가阪

公定價引上과

今後大勢一考

本年 米作第二回豫想에對한 一般의 觀測을 綜合하면 日本內地米는 五千九百萬石 朝鮮米는 一千八百萬石이내외로 豫想되는데 ...

東京國債市況

【東京電話聯合】環境의不振과休日을압두고 處分賣가잇서 米貨債는 六分半一圓十錢低、五分半 七十錢低이오 其他도軟調이엇다 佛貨四分利 一八六〇〇

實物前場取引

賣買高五〇〇枚

▲證券金融 ▲大同産業 ▲滿洲平 ▲化新 ▲銀行

貿易依然好調

十月中旬의 貿易도 一千八百九萬圓의 出超로서 依然 好調가 繼續되어 貿易業觀을 寢할수업는바 日本의 輸出品이 中國의 排日로 …

當分保合時代

一波瀾은月末?

後場續騰 後場은 二十八圓二十六錢에 六丁高로 始場後 高步調(當限은五錢八十五錢)로 五節三十九錢에올느고 四十五錢에止場하다

趙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三ノ一 電話長九一六 六九三 一一六五

朝取期米取組內容

堂島前場賣買

各地正米

京城硬化 清算底意 頑强이 十錢硬化인 丸仁三等二十九圓五 오 定期側의 注文으로 氣配續 …

仁川引締 …

釜山小跳 …

大邱强含 …

群山小堅 …

木浦强調 …

株式 福 小林取引店 京城明治町一
期米 福 吉村米取引店 仁川本町三

金融 十九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買入價◆

米穀 十九日

◆京城正米◆ ◆仁川正米◆ ◆大阪正米標準價◆ ◆京城雜穀◆ ◆仁川大豆◆

商品 十九日

◆京城綿絲布市勢◆ ◆京城綿布◆ ◆日本麥粉市勢◆ ◆카프期米◆ ◆綿油冲價◆ ◆綿棒粕冲價◆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金買 銀入 奬 京城貫鐵洞一二四 奬金號 電長光一五九九

株式 十九日

◆朝取短期◆ ◆算定代引日步◆ ◆大阪長期◆ ◆大阪短期取組◆ ◆大阪短期氣配◆ ◆東京短期取組◆ ◆東京短期◆ ◆東京現株◆ ◆朝取短期賣買高◆

期米 十九日

◆朝取期米◆ ◆大阪期米◆ ◆大阪期米取組◆ ◆朝取期米賣買高◆ ◆朝鮮內各地期米◆ ◆大阪廿中在米高◆

商品 十九日

◆東京期米◆ ◆日本各地期米◆ ◆大阪綿絲◆ ◆各地人絹◆ ◆大阪棉花◆ ◆橫濱生糸◆ ◆大阪砂糖◆ ◆海外砂糖◆